

한국목간학회

제 44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 ❖ 일시 : 2024.3.8.(금) 13:00~18:00
- ❖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법학관 B163호
- ❖ 주최 : 한국목간학회

일정

13:00~13:10	인사말	한국목간학회장
13:10~14:20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이주헌(부산고고학회)
14:20~15:30	곡성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최연식(동국대학교)
15:30~15:40	휴식	
15:40~16:50	선각대사비문에 보이는 왕건과 궁예 - 판독 교정에 바탕한 새 사실 유추 -	하일식(연세대학교)
16:50~18:00	최근 중국에서 출토된 주요 간독 소개 - 한반도 자료와의 연결을 모색하며	방윤미(서울대학교)

목차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5
이주헌(부산고고학회)	
[토론문]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을 읽고	35
이문형(원광대학교)	
곡성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45
최연식(동국대학교)	
선각대사비문에 보이는 왕건과 궁예	61
- 판독 교정에 바탕한 새 사실 유추 -	
하일식(연세대학교)	
최근 중국에서 출토된 주요 간독 소개	73
- 한반도 자료와의 연결을 모색하며	
방윤미(서울대학교)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이주헌(부산고고학회)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이주현(부산고고학회)

목차

- | | |
|-----------------------|------------------------------|
| I. 머리말 | III.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과연 聖王인가? |
| II. 출토문자와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 | IV. 益山 雙陵 武王說의 의문점과 피장자 검토 |
| | V. 맺음말 |
-

I. 머리말

부여 능산리 일대에는 백제 사비기의 고분과 사찰 및 나성 등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들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몇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유적의 대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烏山으로 이어진 능선의 중앙부 남사면 자락에 자리한 능산리고분군은 1915년과 1917년에 일부가 조사된 이후, 1930년대에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¹⁾(도면 1-①) 특히, ‘부여 왕릉원’으로 개명된 능산리고분군은 다른 백제 고분에 비하여 밀집도가 낮고 배치 양상도 비교적 일정한 편인데,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한 횡혈식석실묘가 대부분이며, 각각의 석실은 모두 정연하게 치석된 판석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있다. 각 석실의 횡단면 형태는 터널형(1기), 육각형(5기), 방형(2기)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면 육각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체로 고분의 현실은 장방형이고, 현문은 문틀식구조이며, 현실 앞으로는 비교적 긴 연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고분에서는 호석시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능산리형석실’이라고 부르며, 고분의 입지와 규모, 축조 방법, 출토유물, 장식기법 등을 고려할 때 백제 사비기(538~660년) 왕과 그의 가족들 陵墓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²⁾ 또한, 능산리 동고분군과 서고분군도 고분의 구조와 규모, 축조방법 등에서 중앙에 분포한 고분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혈연적으로 王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백제 최고위층의 고분군으로 이해하고 있다.³⁾(山本孝文,2002;104)

한편, 이 가운데 中下塚(2호분)으로 널리 알려진 고분은 ‘부여 왕릉원’의 중앙고분군 내에서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도면 1-②) 武寧王陵이나 송산리 6호분 등과 같은 백제 웅진기 전축분의 아치형 구조와 동일한 터널식 천장형태를 따르고, 장대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
- 1) 능산리고분군은 일반적으로 오산 중앙부 구릉에 정비된 7기의 고분만을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구릉에도 다수의 백제 사비기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2021년 문화재청에서 고분군의 명칭을 ‘부여 왕릉원’으로 새로이 명명하면서 ‘능산리중앙고분군’은 물론이고 동쪽과 서쪽에 분포한 ‘능산리동고분군’과 ‘능산리서고분군’을 모두 포함하여 사비기 王族의 무덤으로 사실상 인정하였다. 본문에서는 중앙에 위치한 고분(8기)을 주대상으로 하며, 동고분군(6기)과 서고분군(4기)은 논문의 취지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능산리중앙고분군’은 7기가 복원 정비되었고, 1966년 東下塚(1호분)과 中下塚(2호분) 사이에서 횡구식석실 1기가 긴급 조사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8기의 능묘가 烏山의 중앙부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학계에서는 대체로 익산에 있는 雙陵을 武王과 王妃의 陵墓로 인식하고 있으며, 義慈王의 陵墓는 중국 낙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능산리고분군에는 聖王~威德王-惠王-法王에 이르는 4명의 君主와 그들의 직계가족이 안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3) 능산리 ‘중앙고분군’과 ‘동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석실의 규모는 물론이고 매납된 목관의 위계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주목하여 중앙의 6기만을 王陵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김규운·양숙자,2016;113~115)

축조한 뒤 회를 발라 마감했다는 점 등에서 능산리형석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인구,1977;89, 강원표,2016;116) 나아가, 中下塚(2호분)의 주인공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泗泚로 遷都를 단행한 聖王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강인구,1976;85~86, 이남석,2000;23~24) 하지만, 이러한 통설은 中下塚(2호분)에 대한 기존의 조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泗泚遷都라는 역사적 사건에 인식이 한정되어 陵墓의 主人公을 추정한 것이어서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하며, 의문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 聖王에 대하여, 사비로 遷都한 王의 陵墓는 당연히 ‘부여 왕릉원’에 조영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641년에 사망한 武王의 陵墓는 『高麗史』地理誌에 언급된 俗說과 설화적 성격이 강한 『觀世音應驗記』나 『三國遺事』 등의 武王 관련 기록을 근거로 雙陵 대왕릉으로 역사화하는 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는 해당 고분의 피장자가 聖王과 武王이라는 확실한 고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덤의 主人公은 기존의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대사를 다루는 연구자는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에 대한 부정합한 해석으로 역사의 진실을 가리거나 다양한 연구분야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른 결론을 내리는 등의 연구 방법은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존에 진행된 역사적 해석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새로 발견된 자료와 서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고 기존 해석의 오류를 찾고자하는 시도는 역사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이에, 백제 사비기의 유적에서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출토문자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의 다양한 형태와 서로 비교하여, ‘부여 왕릉원’을 중심으로 한 사비기 王陵의 主人公에 대하여 추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中下塚(2호분)과 益山 雙陵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歷年代와 피장자에 대하여 새로운 時角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나 역사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미 통설로 굳어져 버린 가짜 뉴스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과 재인식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백제사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 한국고고학의 심도 깊은 연구에 작은 받침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출토문자와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

백제에서 伽藍을 창건하고 舍利를 봉안하였음을 기록한 것으로는 ①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 ② 왕흥사지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 ③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로서 현재까지 3개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 자료들은 사비기에 이루어진 역사적 팩트에 대한 기록이므로 당시대에 유행했던 다양한 형태의 능산리형석실과 비교하여 歷年代를 추출해 낼 수 있는 key word로서 매우 중요한 고고자료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비기에 舍利를 봉안했던 사실을 전하는 이 출토문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창왕명 석제사리감은 1995년에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부여나성 사이에 위치한 능산리사지 목탑지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③) 이중기단으로 구성된 목탑지에는 동서 108cm, 남북 133cm 크기의 심초석이 깊이 114cm 내외로 묻혀 있었다. 石製舍利龕은 심초석의 남쪽 가장 자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정도 기울어진 채 발견되었다. 사리감의 북측에서는 상부가 결실된 心柱가 발견되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밝혀졌다.(국립부여박물관,2000;25)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목탑지는 기반토를 조성한 뒤 심초석이 들어갈 중앙의 자리를 굴광한

후 심초석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 심초석의 남쪽 가장자리에 석제사리감을 놓고 옆에 지름 50cm 내외의 心柱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한정호,2013;45~50) 심초석 상부에서 발견된 사리감은 사리장엄구를 넣기 위해 제작된 일종의 사리공이다. 석제사리감의 전체적인 형태는 밑이 평평하고 상부가 둥근 아치형이며, 높이 74cm에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cm이다.舍利를 봉안하기 위해 굴착된 감실은 25.3cm×25.5cm×21.5cm 규모로 형태도 아치형이며 둘레에는 뚜껑을 받치기 위한 4cm 정도의 턱을 마련하였다. 감실에는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라는 명문이 좌우측에 각각 10자씩 새겨져 있어, 백제昌王 13년(567년)이라는 조성연대와 백제 王室의 발원에 의해 王陵으로 추정되는 능산리고분군에 묻힌 사람의 축원을 위해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4)(도면. 1-④) 또한, 심초석 주변에서는 소조불과 금동 및 각종 장식품 등 595점에 달하는 사리공양품이 수습되어 삼국시대 佛舍利莊嚴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② 왕흥사지 출토 舍利莊嚴具는 목탑 아래에 놓인 心礎石의 남쪽에 마련된 사리감 내에서 출토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9;51) 자연석을 100cm×110cm×45cm 크기의 상방하원형 모양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윗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었으나 아랫면은 둥그스름한 형태를 하고 있다. 心礎石의 남쪽 중앙 윗면에 만들어진 舍利孔은 16cm×12cm×16cm 크기로 장방형이며, 발굴당시 사리공 위에는 모죽임 형태의 단면 사다리꼴의 화강암 석조뚜껑이 덮여 있었다.(도면. 1-⑤) 화강암을 釘으로 곱게 잔다듬질하여 만든 이 석조뚜껑의 바닥면에는 사리공 크기에 딱 맞는 얇은 턱이 있어서 사리감 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뚜껑의 윗면에는 붉은색의 辰砂로 둥글고 장식적인 동심원과 삼엽문, 꽃문양 등이 그려져 있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9;90) 舍利器를 봉안하기 위해 굴착한 방형의 감실 안에서는 원통형 청동제합과 은제호, 금제병으로 구성된 금속제 3중 사리기가 발견되었는데, 3중 사리기 가운데 가장 바깥쪽의 외함인 청동제합의 표면에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음각기법으로 “丁酉年二月十五日 百濟昌王爲亡王子 立刹本舍利二枚 葬時神化爲三” 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어, 학계에서는 威德王 24년(577년)에 죽은 王子를 위해 사찰을 세우고, 舍利를 묻은 후 木塔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도면. 1-⑥)

③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2009년 서탑의 해체작업 중 발견된 것으로 백제 舍利信仰의 발전과정과 舍利莊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김현용·오정현,2014:29) 서탑 1층 탑신 중앙에 설치된 心柱石(100.5cm×100.5cm×75cm) 상면에 24.8cm×24.8cm×27cm의 舍利孔이 방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心柱石과 두 번째 心柱石의 맞댄 면 사이에는 밀봉하기 위한 석회가 가장자리를 따라 발라져 있었다.(도면. 2-①) 心柱石은 총 17단으로 4층 탑신 높이까지 수직으로 쌓여 있었으며 제일 위쪽에 있는 心柱石 상면에는 찰주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직경 36cm, 깊이 9.5cm의 원형 홈이 확인되었다.(이동식·이연경,2014:280)

舍利孔 내에는 원형합 6개를 두고 이들 사이에는 목색 유리구슬을 채운 뒤 남측에는 은제 관식과 금제소형판을, 북측에는 직물을 짠 刀子를 여러 자루 두었다. 그리고 남측 벽면에 비스듬히 金製舍利奉迎記를 올려놓고 정중앙에 금동제사리호를 마지막으로 안치하였다. 특히,

4) 선학의 연구에 의하면, 석조사리감에 기록된 昌王은 威德王이고 妹兄公主는 威德王과 혈연관계인 누이이다. 능산리사지는 泗泚遷都(538년)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이곳에 石製舍利龕을 봉안한 시점(567년) 사이에 逝去한 王은 聖王이 유일하다. 따라서 능산리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형식을 하고 있는 中下塚(2호분)의 주인을 聖王으로 파악하고, 능산리사지를 비명횡사한 聖王의 명복을 빌고자 창건한 ‘陵寺’로 이해하고 있다.(신광섭,2006;35~36) 하지만, 中下塚(2호분) 피장자가 실제로 聖王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므로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금제사리봉영기는 가로 15.3cm, 세로 10.3cm의 금판으로 앞뒷면에 刀子를 이용하여 음각하고 각 획을 따라 朱墨을 칠하였는데, “窺以法王出世 隨機赴感 應物現身...(중략)...故能謹捨淨財 造立伽藍 以己亥年正月二十九日 奉迎舍利...(중략)...並蒙福利凡是有心 俱成佛道”라고 하는 193자(앞면 99자, 뒷면 94자)의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도면. 2-②) 학계에서는 武王 40년(639년)에 王妃인 沙宅積德의 딸이 발원하여 미륵사에 서석탑이 세워진 것으로 금제사리봉영기의 내용은 크게 부처의 공덕과 사리의 영험함에 대한 찬미, 백제왕후의 재물 회사를 통한 가람의 조영과 사리봉안, 대왕폐하와 왕비에 대한 발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장미애, 2020:85)

이상에서 살펴본 출토문자 자료는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석제사리감의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확인되는데, 즉,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과 같이 윗부분이 아치형을 띠는 것(A유형)과 왕흥사지 석제사리감의 뚜껑과 같이 윗부분을 모죽임하여 단면이 육각형을 띠는 것(B유형),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의 심주석과 같이 단면이 사각형을 하고 있는 것(C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창왕명 석제사리감에 보이는 아치형 감실(A유형)에 대해서는 중국 漢나라의 부장품에 보이는 馬蹄形漆器의 기형과 비교하여 중국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주경미, 2002:41), 馬蹄形漆器는 시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리용기로 사용된 예가 없어 기형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아치형을 하고 있는 사리감의 형태는 무령왕릉에서 보이듯이 중국 전축분의 영향으로 웅진대 말부터 등장하는 볼트(vault)구조의 고분과 유사한 형태로 이를 계승한 중하층의 현실구조에서 따온 것이라거나(이도학, 1995), 사리감의 측면에 사리를 안치하는 감실을 마련하여 사리를 봉안하고 뚜껑이 아닌 문으로 마감하였으며, 豎納이 아닌 橫納의 개념으로 중국에서 棺 개념을 사리기에 도입한 것과 같이 백제에서도 횡형석실의 형태를 舍利龕에 전용한 것이라는 견해는 주목되는 부분이다.(김연수, 2000:106, 2003:269~272)

백제는 538년에 도움을 응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이전하고 사비시대에 들어갔다. 이 시기 王들의 陵墓로 조성된 ‘부여 왕릉원’에는 장방형 플랜의 현실과 아치형의 천장, 수직을 이룬 전후의 벽면 등 분명하게 현실 천장의 횡단면이 아치형인 공주 송산리고분군 전실묘의 구조와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형태를 갖춘 석실묘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中下塚(2호분)이다. 더구나, 바닥에는 塼모양의 판석을 깔고, 현실의 폭과 같은 크기로 관대를 만든 것, 연도입구에 石塼을 쌓아 폐쇄한 것 등도 무령왕릉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有光教一, 1979:479~498) 이 가운데 아치형 구조는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舍利奉安과 舍利龕의 제작에 당시 유행했던 능산리형석실의 구조 개념이 접목된 것을 엿볼 수 있다.(도면. 2-③)

한편, 왕흥사지 木塔의 아래에서 확인된 상방하원형 모양의 대형석재는 목탑의 刹柱를 받치는 心礎石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방형 석재의 남쪽에 마련된 舍利龕(舍利孔)을 덮은 뚜껑은 舍利器를 안전하게 봉안하기 위한 龕室로 기능했던 구조물이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목탑지에서는 이와 같이 탑 아래에 별도의 사리안치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현존하는 목탑지의 사례가 많지 않으며 탑마다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백제시대의 木塔에도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형이나 건축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적 변형이 시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왕흥사지 石製舍利龕은 목탑 중심의 지하부에 놓인 心礎石이자 舍利器를 봉안하기 위한 石函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서, 백제식 목탑에 맞게 변형된 독특한 구조물로 해석 할 수 있다.(주경미, 2018:61) 특히, 모죽임 형태의 석조뚜껑(B유형)은 능산리고분군에서 西下塚(3호분)을 비롯하여 4호분 ~ 7호분, 雙陵(대왕묘, 소왕묘)

등 현실의 횡단면이 육각형을 한 평사천장식(고임식) 구조와 동일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데, (도면. 2-④) 이는 능산리형석실의 유행시기와 歷年代를 추정하는데 있어 주목된다.

또한, 미륵사지 석탑은 외형적으로는 목탑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한 것이나, 1층 탑신사방에 문을 내어 탑 내부에 십자형으로 통로를 만들고 중앙에 心柱를 세워 사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탑의 재질이 목재인 경우에는 舍利孔이 기단 이하의 지하에 위치하고, 석재인 경우에는 1층 이상의 상부에 안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에서 확인된 사리공의 위치는 목탑과 석탑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므로, 많은 학자들이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한 시원양식이라 한다. (고유섭, 1975, 장경호, 1988, 천득염, 1990) 따라서 사리의 매납위치 또한 기단부 이하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고, 心柱石에 舍利孔을 설치한 것은 이전의 목탑에서 보이던 심초의 사리감이나 사리공의 매납방식에서 그 위치는 달라졌지만 지하식 심초구조가 지상식 심초구조로 바뀌면서 여전히 木塔의 刹柱 기능을 답습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봉안 방식은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석탑인 산동성 사문탑의 사리봉안 방식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이귀영·박대남, 2010:110, 주경미, 2002:40~41, 2014:329)⁵⁾ 서탑 사리장치에서 십자형 통로 공간의 천장은 수직으로 올라간 벽석위에 두께 25cm 내외의 2단 받침석을 걸치고 대형판석을 덮어서 마련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 능산리형 석실의 구조가 사리장치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조은경, 2011:190~192)도 있다.⁶⁾

백제 사비기 황혈식석실분은 묘실의 평면, 천장의 가구형태, 입구의 시설방식, 그리고 연도의 규모나 형태 등에서 차별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러 요소의 결합상이 가장 집약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다양성을 갖춘 천장형식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는 석실묘의 세부속성 간 차이를 근거로 형식을 분류하고 변화양상을 추적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 석실묘를 구성하는 주요 속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석실묘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이 시간과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속성이 이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특히, 능산리형석실은 개구식에서 문틀식으로, 합장에서 단장으로, 터널천장에서 평사천장이나 평천장으로 석실 구조와 매장방식의 변화를 근거로 선후 관계가 설정되어 왔다. (장재원, 2020:168) 이는 이전시기부터 확인되는 속성과 새롭게 나타나는 속성을 주요 속성으로 파악하여 특정 속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변천을 파악하였고 대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자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현주, 2016:80~82, 오동선, 2019:206~207, 이남석, 2000:19, 허윤영, 2017:72~76, 山本孝文, 2006:153, 吉井秀夫, 1992:65~76) 특히, 6세기 泗泚遷都 이후 현실의 천장형태는 터널식에서 고임식으로 변화하는데 고임식은 천정이 평천장이나 벽체의 상단에 안으로 경사를 둔 고임석을 올린 다음에 수평의 평천장을 구성한 것으로 판석형의 대석을 사용한 예가 많고 묘실의 평면은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이다. 즉, 묘실의 장방형화는 천장구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더불어 축조재료가 할석에

5) 미륵사지 사리기의 형식이나 양식적 특징은 隋代 불사리 장엄과는 전혀 달라서 백제적 변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동시대 중국에서는 螽頂形方形函 형식이 사리기의 외함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백제에서는 왕흥사지의 사리공 뚜껑을 제외하고는 螽頂形方形函 형식이 드문 점을 백제문화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주경미, 2014:329)

6) 미륵사지 서탑의 천장 구조를 백제 후기 황혈식석실분 가운데 고임식(평사천장식)의 구조를 한 능산리 中上塚이(5호분)나 논산 육곡리 2호, 7호분과 같은 형식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고임식에서는 천장석이 석실방향과 직교하며 折角으로 경사진 북벽과 남벽의 모서리 부분에 경사부재를 걸쳐 천장석을 받치도록 가구한 구조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경사부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대형의 천장석이 설치된 미륵사지 서탑과는 구조와 공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서 판석으로 변화되면서 천장이 원형이 아닌 고임식 혹은 수평식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이남석,2002;258~261)

한편,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후 사찰의 건립과 함께 사리 봉안을 위한 불탑이 많이 건립되었다. 특히,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불교를 정치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던 백제 사비기에 있어서 지배층의 묘제는 부처의舍利를 모시는 封墳으로서의 塔 본연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리봉안에 묘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백제 불교건축의 발달된 측면을 석실의 구조와 관련지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견해(조은경,2011;190~191)는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미륵사지 서탑에서 함께 매납된 다양한 공양구는 그 구성이 웅진기 武寧王陵의 부장품과 유사하다. 고분은 특정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지만, 왕흥사지 목탑 사리장엄구의 銘文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탑 건축시 心礎石에 매납한 여러 가지 공양품도 특정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으며, 미륵사지 서탑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양품은 고분부장품의 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舍利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sarira’를 ‘設利羅’, ‘實利羅’, ‘實唎’ 등으로 음역한 것으로, 뜻은 ‘몸이나 뼈, 시신(體, 骨組, 骨, 身, 身骨, 遺身, 屍身, 遺骨) 등이며(주경미,2003;14), 단어 자체에 죽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김낙중,2014b;299)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비기의 舍利莊嚴具는 모두 백제 왕실의 발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작품이며, 특히 발원자와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銘文을 지니고 있어 동아시아 불교미술은 물론이거니와 사료가 부족했던 백제고고학의 새로운 歷年代 자료로서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창왕명 석제사리감이나 왕흥사지 석제사리감, 그리고 미륵사지 서탑 석제사리감을 해당시기에 유행한 능산리형석실의 구조변화와 직접 관련지어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논의된 바와 같이 백제 사비기 능산리형석실의 천장구조가 아치형천장(터널형)에서 평사식(육각형)이나 수평식(방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백제 석탑에서 사리장엄구를 안전하게 봉안하는 舍利龕의 구조와 동일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그리고 미륵사지 서탑 석제사리감(심주석)의 형태가 A유형 → B유형 → C유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능산리형석실의 천장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터널형 → 육각형 → 방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재확인해주는 고고자료이기도 하다. 즉, ‘부여 왕릉원’에서 中下塚(2호분)과 같은 횡단면 터널형 천장구조(도면. 2-③)는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함(A유형, 丁亥年/567년)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6세기 3/4분기에 이르기까지 A유형의 천장구조를 이룬 능산리형석실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西下塚(3호분), 西上塚(4호분), 中上塚(5호분), 東上塚(6호분), 7호분, 익산 雙陵(대왕릉, 소왕릉)과 같은 횡단면 육각형 구조(도면. 2-④)는 왕흥사지 목탑지의 석제사리감(B유형, 丁酉年/577년)의 형태로 볼 때, 6세기 4/4분기 이후에 능산리형석실의 한 유형으로 ‘부여 왕릉원’ 일대에서 조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東下塚(1호분)(도면. 2-⑤, 5-⑥), 8호석실, 서고분군의 1호분, 2호분처럼 수평식 천장 구조를 이룬 석실은 미륵사지 서탑의 석제사리감(심주석)(C유형, 己亥年/639년)과 관련지어 본다면, 7세기 2/4분기에 본격적으로 ‘부여 왕릉원’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⁷⁾

7)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묘와 16호묘의 사례를 근거로, 銀花冠飾이 출토된 능산리형석실분에서 고임식과 수평식 천장 유형이 병존하였음을 강조한 견해가 있다.(이문형,2022:180), 하지만, 5호묘와 16호묘는 석실의 구조로 보아 시기 차이가 인정되며(국립문화재연구소,2001,p.402 <표 26>횡혈식석실묘의 변천, p.443 <표 40> 나주

Ⅲ.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과연 聖王인가?

王陵은 특정사회의 최고 신분층인 王과 그의 家族이 묻힌 무덤이다. 王陵의 조영은 그 시기의 묘제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을 사용함이 일반적이며, 화려하고 장대하게 조성 할 뿐만 아니라 부장품도 당대 최고의 물품을 매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 문화의 정수가 탐색되는 것이다.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건국되어 사비에서 멸망할 때 까지 약 700년간 지속되었고 한성에서 웅진을 거쳐 사비로 천도하면서 각 시기의 王陵은 도읍지내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비시대에 재위한 왕들의 무덤은 부여지역에 자리한다고 보아도 문제는 없으며(부여군,2008:26), 그 대상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보아 ‘부여 왕릉원’으로 파악된다.(도면. 2-⑥)

백제가 文周王때 웅진으로 遷都한 이후 멸망할 때까지 재위한 왕은 義慈王까지 모두 10명이다. 이중에서 義慈王은 중국에서 生을 마감하였기에⁸⁾ 이를 제외하면 모두 9명의 왕들이 南遷 후 웅진과 사비에서 타계하였고, 그들의 陵墓는 이들 지역에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웅진기 王의 陵墓로 파악되는 송산리고분군에는 묘지석으로 主人公이 확인된 武寧王(501~523년)의 陵을 비롯하여 동일한 가계를 이룬 선대의 文周王(475~477년)과 三斤王(477~479년), 그리고 昆支(?~477년)의 陵墓가 존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출신가계를 달리하는 東城王(479~501년)의 陵은 인근에 조금 떨어져서 위치한 교촌리고분군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이주헌,2019:379~424)

538년 聖王이 사비로 遷都한 이후, ‘부여 왕릉원’에는 聖王에서 武王에 이르기까지 5명의 王陵이 탐색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재조사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익산에 소재한 雙陵을 武王(600~641년)의 陵墓으로 확정하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성준 외,2018:3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9:30~34)⁹⁾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武王을 제외한 聖王과 威德王(554~598년) 그리고 惠王(598~599년)과 法王(599~600년)이 ‘부여 왕릉원’에 안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들 君主의 사망에 대하여서는 『三國史記』와 『日本書紀』 등의 史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聖王은 554년 7월 관산성 전투에서 敗死하였고, 威德王은 그 보다 44년 후인 598년 12월에 그리고 惠王과 法王은 599년과 600년에 5월 각각 逝去하였다.

그동안 ‘부여 왕릉원’에 분포한 陵墓의 主人公 비정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학계의 정설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사비기 능

복암리 3호분의 분기 및 연대), 각 석실에서 출토된 銀花冠飾 역시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선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간과한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16호묘 출토 銀花冠飾은 남해 남치리 백제고분이나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銀花冠飾(2점)과 같은 유형으로서 7C 2/4분기에 통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5호묘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은 부여 능안골 36호 석실묘 출토품과 같이 꽃봉오리에 심엽형 투공이 뚫려 있고 고사리형 세지가 있으므로 16호묘 출토품보다 시간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한상,2009:303) 또한, 수평식 천장의 구조가 威德王 이후 王陵으로 조영되지 않는 이유로 法王(599~600년)의 禁殺令으로 대변되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王陵이 고임식 구조로 통일된 것으로 본 견해(이문형,2022:180) 역시 문헌이나 고고자료 등을 근거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

- 8)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義慈王 二十年條 定方以所浮見 ... 王病死 贈金紫光祿大夫衛尉卿 ...
- 9)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익산 雙陵을 夫婦墓로 가정하면서, 대왕묘를 武王의 무덤으로 적극 이해하였다. 특히, 2009년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서 639년 武王의 王后가 佐平 沙宅積德의 딸이라는 사실과 『日本書紀』 皇極天皇 元年(642년) 기사에 근거하여 義慈王의 어머니인 國母主가 武王 사후 1년여 만에 사망했다고 인식하면서, 義慈王의 어머니가 沙宅王后라면 소왕릉은 武王의 부인인 沙宅王后의 陵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雙陵이 夫婦墓라는 근거를 고고학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義慈王 초기의 정변과 이후 沙宅氏의 활약 등 이후 백제 정계의 변화양상이 정합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논리적 한계가 있다.

산리형석실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분묘의 시간 순에 따른 순서배열을 기준으로 당시에 활동한 王 또는 王妃의 陵墓로 추정하는 연구에서 中下塚(2호분)을 泗泚遷都 후 조성된 王陵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과 東下塚(1호분)을 다소 늦은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학계의 공통된 경향이다.(강인구,1977;84~89, 이남석,2000;20, 최완규,2011;281) 특히, ‘부여 왕릉원’의 개별 고분 전체가 모두 횡혈식석실분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천장의 구조를 근거로 中下塚(2호분)과 같은 터널식이 있는가 하면, 西下塚(3호분)이나 中上塚(5호분) 등과 같은 단면 육각형의 고임식(평사천장식) 구조도 있고, 나아가 東下塚(1호분)과 같은 횡단면이 방형인 수평천장식이 있어, 일단 시간성의 배열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강한 편이다. 즉, 6세기 전반경에 축조된 아치형의 武寧王陵과 유사한 터널형 구조를 갖춘 中下塚(2호분)을 가장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中下塚(2호분)의 경우 터널식 석실분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재료가 보다 세련된다거나 연도가 중앙으로 장착되는 등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벽면의 회바름 등의 기법은 아직 전단계의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일단 ‘부여 왕릉원’에 분포한 고분 가운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평천장식은 고임식(평사천장)의 다음단계에 등장하는 유형이므로 능산리고분군 가운데 수평천장을 하고 있는 東下塚(1호분)을 백제 횡혈식석실분 중에서 최말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횡혈식석실분의 특징으로 입구가 마련된 점을 들어 석실내의 추가장 혹은 合葬과 같은 多葬制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武寧王陵에서도 확인되듯이 백제 웅진기의 궁륭식이나 터널식에서는 多葬制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고임식(평사천장)에서도 매우 유행한 것이었으나, 7세기 전반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雙陵의 소왕릉과 대왕릉에서 묘실 내에 1개의 관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多葬制에서 점차 單葬制로 변화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이러한 변천과정을 종합해 본다면, 中下塚(2호분/터널형)은 夫婦合葬의 多葬制를 전제 할 수 있다. 묘실의 구조적인 변화와 葬制의 흐름을 근거로 王陵으로 추정되는 능산리고분군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中下塚(2호분)이고, 사비기 백제의 王으로서 처음 陵墓를 조성한 것이 聖王이기에 형식적으로 가장 이른 中下塚(2호분)이 聖王의 무덤일수 밖에 없으며,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변천과정에서도 웅진기에 등장한 터널식의 유형은 사비기 초기에도 여전히 사용되었기에 聖王의 陵墓는 이 터널식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강인구,1977;88, 이도학,1996;77~79, 이남석,2002;235~243, 부여군,2008;29~31)

하지만, 최근 ‘부여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陵墓로 비정하는 학계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공주 송산리 6호분의 고고학적인 맥락과 관산성전투 이후 백제 정계의 동향을 고려하여, 聖王의 陵은 공주 송산리고분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발표되었다.(이주현,2017;406~418, 2019;404~412) 이에 의하면, ① 武寧王陵 전축배수구의 훼손상태와 6호분 연도폐쇄부에서 출토된 “梁宜以爲師矣” 명문전의 고고학적인 출토 맥락 ② 전문계열 문양전으로 장식된 송산리 6호분 석실의 네 벽면에 백색의 灰를 칠하고 다시 벽화가 그려진 것은 기존 무덤의 재사용을 위한 것 ③ 6호분의 관대는 武寧王陵에서 王이 안장된 위치와 같은 묘실 내 右側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최종 매장형태는 男性 單獨葬으로 파악되는 점 ④ 6호분의 입지가 武寧王陵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主人公이 武寧王系로서 王族일 개연성이 매우 높음 ⑤ 관산성전투의 패전으로 聖王과 泗泚遷都를 주도한 세력의 후퇴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主和派 耆老들의 입지 강화에 따라 송산리고분군의 서쪽능선에 聖王의 陵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는 ‘부여 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을 명확한 고고학적 근거 없이 정황적인 판단만으로 554년에 사망한 聖王의 陵墓로 단

정한 학계의 논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이며, 그 대안으로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의 분석에 따라 송산리 6호분을 ‘夫婦獨葬’¹⁰⁾으로 모신 聖王의 陵으로 비정한 것이었다.

이제는 그 동안 학계에서 聖王의 陵墓로 비정한 ‘부여 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에 대한 새로운 主人公을 탐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陵墓로 비정한 논리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즉, 中下塚(2호분)의 구조가 아치형을 하고 있는 武寧王陵의 천장처럼 터널형을 이루고 있으며, 538년 사비 천도이후 도읍의 근교에 王陵이나 그에 버금가는 상류층의 집단 무덤이 조성되었을 것, 그리고 성왕을 위한 願刹인 능산리사지 목탑에 넣은 石製舍利龕과 棺을 안치한 石室의 모양이 동일한 것은 “王卽佛 思想”의 발현(이도학,1996;76)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聖王의 陵墓를 中下塚(2호분)에 비정한 것이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발굴 조사한 中下塚(2호분)의 조사기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채, 무덤의 主人公을 聖王으로 비정해 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567년에 건립된 능산리사지에 대해서도 이미 13년 전인 554년 7월에 사망한 聖王의 願刹로서 昌王銘舍利龕을 봉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였다.¹¹⁾

이상과 같은 단순한 논리와 출토문자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中下塚(2호분)이 聖王의 무덤일 것이라는 학계의 결론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1915년 능산리 中下塚(2호분)을 발굴조사 한 黑板勝美의 복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명서에 의하면, “ 그 한쪽에 치우쳐 목관을 안치한 흔적이 있고, 뼈 조각 및 칠을 한 목관 못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산포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제시한 도면에서도 석실 시상바닥의 좌측편으로 인골과 목관의 잔유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黑板勝美,1974) 비록 도굴 된 상태이지만, 中下塚(2호분)의 석실 내에는 시상 左側으로 單獨葬이 실시된 것(윤태영,2019;164~166)임을 알 수 있는데, 中下塚(2호분)을 그 동안 夫婦合葬으로 인식하였던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사실이다.¹²⁾ 또한, 黑板勝美의 복명서에는 각종 실측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현실 및 연도내 유물배치도>에는 석실 내에 위치했던 木棺 추정도와 人骨 출토지점이 표기되어 있다.(도면. 3-④) 이를 보면 人骨은 시상 左側의 추정 木棺 내부 5개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頭蓋骨이 그 중앙지점에 표기되어 있다.¹³⁾ 이와 같은 발굴조사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할 때, 夫婦獨葬으로 이루어진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을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같이 聖王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인물로 파악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서로 비교하는 등 논

10) 당초 석실을 축조할 시에는 夫婦合葬을 위해 複數用으로 尸床面을 만들었으나, 최종적으로는 夫婦 중 한명만 안장된 형태를 말하며, 기존에 單獨葬이라고 분류한 것과 같은 것이다. 석실 축조시 死者만을 안장하기 위해 시상을 1人用으로 처음부터 구축한 單葬과는 유행시기 및 매장방식에 있어 개념상 차이가 있다.

11) 능산리사지 출토 석제사리감에는 舍利를 공양한 시점과 공양자 만이 기록되어 있고, 사리공양의 목적과 대상자의 死亡 등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안기의 사례로 볼 때, 主人公이 사망하기 전에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舍利를 공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를 554년에 사망한 聖王일 것으로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

12) 中下塚(2호분) 석실 내 시상의 서쪽에만 木棺 흔적이 확인되고 동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黑板勝美의 보고문을 근거로, 아마도 동쪽에서 시신의 안장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거나 아예 처음부터 木棺이 놓이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었다. 특히, 석실이 후대에 도굴이 되더라도 木棺이 놓이고 부식된 상태에서는 木棺과 관련된 관정 등은 몇 점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中下塚(2호분) 상면 동쪽부분에서는 木棺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잔존유물 또한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夫婦合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주목할 만한 견해이다.

13) 시상에 안치된 人骨 중 足骨은 관대의 남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므로, 중앙지점에 위치한 頭蓋骨은 中下塚(2호분)을 도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人骨 散亂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김태식,2017;44), 이는 전체적인 조사내용으로 보아 합리적인 생각이다.

리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웅진기에서 사비기에 조영된 습葬墓의 경우, 석실 내에서 男女의 안장위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고분의 경우 묘실 내에서 複數埋葬이 확인된 사례는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2인 습葬은 주로 횡구식이나 횡혈식석실에서 추가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성격은 家族葬으로 성별이 男女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夫婦合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웅진기와 사비기에 있어 석실에 안장된 主人公을 夫婦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주 武寧王陵을 비롯하여 부여 능안골고분 36호묘와 53호묘를 들 수 있다.

① 武寧王陵은 경사진 산비탈을 파고 그 속에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봉분은 지름 20m 내외이며 높이는 7.7m이다. 매장주체부는 장방형의 현실에 연도를 갖춘 전축묘로서 현실은 남북 420cm, 동서 272cm, 높이 314cm이다. 현실의 바닥과 관대는 벽돌을 2층으로 깔았는데, 관대가 시설된 곳은 다른 곳보다 지반 자체를 높게 남겨두고 그 위에 벽돌을 깔아 王과 王妃의 습葬棺臺로 만들었다. 武寧王陵은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108종 3,00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실 내부에서는 金松으로 만든 2개의 木棺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王의 목관은 동쪽에, 王妃의 목관은 서쪽에 놓여 있었다. 목관재를 수습한 다음 내부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王의 유해부에서는 두침과 족좌, 금제관식, 뒤꽂이, 금제이식, 금은제 대금구, 금동제 식리가 출토되었고, 王妃의 유해부에서는 금제관식, 이식, 금은제 천, 금동제 식리가 출토되었다.(도면. 3-①) 대체로 장신구는 木棺 내에, 금속용기와 중국도자기는 木棺 밖에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427~429)

武寧王陵에서 王과 王妃의 배치는 머리방향을 연도(남측)로 향하여 王右妃左가 된다. 武寧王陵은 전실구조와 사용전, 출토유물 등으로부터 중국 南朝의 梁과 밀접한 관계가 상정되어있고, 王과 王妃의 배치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梁書』天監六年條에는 연회의 석차에 있어서 ‘西方爲上’ 이라하고, 梁에서는 서쪽(右)을 上席으로 했다. 강인구는 백제고분에 있어서 피장자의 침향이 고분의 방향(횡혈식묘의 경우는 연도의 개구방향)과 반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강인구, 1977; 51) 하지만, 고분의 방향과 피장자의 침향이 일치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 武寧王陵이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 두어야 할 점은 王右妃左라고 하는 중국적인 배치를 취하면서도 王東妃西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東側優位の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머리방향을 南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鐘方正秀, 1996; 1350~1351) 그러나 백제에서는 右片袖式을 중국에서 그대로 수용한 사례가 머리방향의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男右女左의 배치방식은 어느 정도 규정된 형태에 따라 행하여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¹⁴⁾

② 능안골 36호 석실묘는 횡단면이 육각형인 고임식(평사천장식) 판석조 횡혈식석실묘로서 연도는 남벽 동편 우측에 편재한 사비기의 고분이다. 석실 내에는 제자리에 위치한 유물과 함께 人骨 중 잔존한 일부분과 하악골 등이 모두 제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며 관정과 은제 요패장식, 은제 관모장식 등이 석실 내에서 원형을 유지한 채 드러난 완전한 처녀분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178~223) 특히, 석실 바닥의 동서에 나란히 안장된 人骨의 흔적이 드러나 夫婦合葬墓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서 양쪽에 드러난 두 人骨의 흔적

14) 일본 古墳時代の 경우, 男女의 배치관계는 中期부터 일반적으로 男左女右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後期에는 右片袖式 횡혈식석실의 존재로부터 중국식의 男右女左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大坂府 柏原市の 후반기고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百濟系氏族에 의해 5세기 말엽에 右片袖式 횡혈식석실이 도입된 이후 7세기대에 이르기까지 男右女左의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高井田山古墳과 같이 횡혈식석실의 도입에 있어서 石室構築技術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思想도 함께 도입되었다고 지적한 견해(鐘方正樹, 1996; 1358쪽) 주목된다.

은 동편(左)의 것이 모든 출토유물의 크기에서나 木棺 등의 크기에서도 서편(右)의 것 보다 다소 큰 것이 주목된다.(도면. 3-②) 출토된 人骨은 左側의 人骨 중 치아와 하악골, 그리고 대퇴골 및 경골 일부와 발뼈 중 종골, 거골 일부가 남아 있어서 나이와 키 등 일부사항을 알아 볼 수 있는데, 연령은 40세가 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키는 右側 경골(Tibia)을 기준으로 공식에 대입해 보면 161~168cm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8:378~382) 한편, 36호 석실 내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은 동편의 것과 서편의 것이 양식상 차이가 있는데 동편의 銀貨冠飾은 은제 얇은 판을 대칭으로 50° 각도로 세로로 구부린 후 관식의 봉오리에 연꽃 또는 화염문을 형상화 한 것이고 바로 아래쪽으로는 당초문과 화염문과 같은 모양을 형상화하여 한쪽에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장식을 오렸다. 이 장식들은 끝 부분이 모두 위를 향하도록 만들었고 가지부분에는 두 줄의 당초문을 대칭방향으로 새긴 것이다. 반면에 서편의 銀貨冠飾은 관식의 가장 윗머리 부분에만 화염문과 같은 장식 1조만 표출한 것이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동·서편 유물들의 크기와 모양 등에서 동편(左)은 성인 男性으로 추정되며 서편(右)은 성인 女性의 人骨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8:185)

③ 능안골 53호 석실분은 장방형 할석과 판석을 사용하여 조적식으로 쌓은 것으로 석실의 횡단면이 육각형을 띠며 지하식으로 축조된 횡혈식석실묘이다. 연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석실 내부에 인골이 동서로 나란하게 원형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夫婦合葬墓 성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출토된 관정 및 관고리의 간격은 木棺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처녀분이다.(도면. 3-③) 특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人骨과 부분적이거나 人骨과 치아 등이 그대로 유존되고 있어 피장자들의 나이와 신장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8:295~309) 人骨은 2개체 분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동편의 경우는 두개골과 상악골, 갈비뼈, 치골 일부와 대퇴부, 정강이뼈 등이 일부 제자리에서 드러났으며, 性別은 골반의 대좌골절흔의 폭이 좁고 깊은 점과 천골의 耳介 앞면 홈(Preauricular)이 없는 점, 또한 견갑골의 견봉(Acromion)이 잔존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男性이며 나이는 30세~40세로 파악된다. 서편에서는 두개골과 상하악골, 갈비뼈 일부, 대퇴부 및 정강이뼈 일부가 제자리에서 출토되었는데, 골반의 대좌골절흔(greater sciatic notch)이 얇고 넓은 점, 두개골에서 유양돌기(Mastoid Process)의 모양이 작고 부드러운 점, 천골의 耳介 앞면의 홈(Preauricular)이 잔존한 점으로 보아 女性임을 알 수 있고, 나이는 25~30세 정도이며 키는 우측 척골의 길이인 25.5cm를 공식에 대입하여 보면 평균 165cm 전후로 분석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998:378~382) 한편, 철제 삼각형 모자심이 동편에서만 출토되어 신분상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東西로 안치된 人骨은 습葬된 상태로 남아 있고 관정이나 관고리의 모양, 재질 등에서 신분상의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木棺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나 기타 모든 출토유물 등에 있어서도 신분상 동측과 서측이 서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단서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등한 夫婦合葬墓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 내에 人骨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안장된 主人公의 性別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석실 내에서 男性은 右側(동쪽), 女性은 左側(서쪽)에 위치한다. 이는 습葬일 경우 백제에서 性別에 따라 피장자의 안장위치가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中下塚(2호분)의 경우 시상의 左側(서쪽)에서만 人骨과 木棺의 잔유물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서도 主人公은 분명히 女性이며 夫婦獨葬으로 안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聖王의 죽음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에는 “聖王 32년(554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포악한 병사들에게 살해되어 돌아가셨다. 시호를 聖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¹⁵⁾ 『日本書紀』에는 “..... 신라는 明王이 친히 온다는 것을 듣고 나라 안의 병사를 모두 내어 길을 끊고 쳤다. 드디어 苦都是 明王을 붙잡고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왕의 목을 치겠습니다.’고 하였다. 苦都是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맹서한 바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노예의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고 하였다. 이때 聖王의 목은 신라 왕궁 북청의 계단 밑에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고, 나머지 몸은 백제로 반환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⁶⁾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聖王은 머리가 없는 몸만 사비로 보내졌으므로 ‘부여 왕릉원’ 中下塚(2호분)에서 頭蓋骨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분의 주인공은 聖王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계에서 그동안 명확한 고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中下塚(2호분)의 주인공을 聖王으로 비정해 왔던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여 왕릉원’ 내에서 차지하는 中下塚(2호분)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사리감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본다면, 中下塚(2호분) 주인공의 성격은 聖王의 직계가족 중 女性에 해당하는 人物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壽陵으로 파악하고 사비도성 축조 계획단계부터 夫婦合葬으로 설계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婦人만 묻히게 되어 夫婦獨葬의 형태로 안장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남편인 聖王은 이곳에 묻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견해는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윤태영,2019;165) 즉, 聖王은 관산성 전투에서 敗死하였고, 시신이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聖王의 시신은 사비도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喪葬禮를 치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陵墓에도 묻히지 못하였을 것이다.¹⁷⁾ 더욱이 喪葬禮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威德王의 왕위계승 역시 분란을 일으켰을 것이므로 머리가 없는 聖王의 시신은 壽陵으로 그가 만들어 둔 中下塚(2호분)에는 묻히지 못하였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¹⁸⁾

이러한 추정은 능산리고분군의 서편에 건립된 능산리사지의 건립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창왕명 석제사리함의 명문을 통해서 볼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함은 567년에 능산리사지의 木塔에 봉안되었다. 백제에서 寺刹을 세우고 木塔에 舍利를 봉안하는 일련의 과정은 先王의 冥福을 비는 것뿐 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고 왕실의 정치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도 신구 귀족들과 백성들을 통합하여 왕권을 안정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최경환,2023:156) 따라서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은 聖王이 관산성에서 서거한 후 혼란스러웠던 백제 政界를 빠르게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한 王族 가운데 女性으로 바로 聖王의 婦人은 아니었을까? 현재 남아있는 문헌기록은 없지만, 그녀는 아들인 餘昌이 주도한 관산성 전투를 적극 반대한 주화파 세력파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聖王의 후사

15)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聖王, 三十二年,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師步騎...爲亂兵所害薨 諡曰聖

16) 『日本書紀』 卷十九 欽明紀 十五年 十二月條.

17) 이와는 달리 聖王은 喪葬禮를 치르고 능산리고분군에 묻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길식,2008:87)

18) 聖王의 陵墓를 中下塚(2호분)과 東下塚(1호분) 사이에서 1965년 능산리고분군의 봉분 복원공사시 발견된 석곽묘(능산리 8호)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윤태영,2019;165) 하지만, 이 석곽묘는 매장주체부가 소형이고 평천장을 한 황구식석곽(174×76×90cm)으로 봉분도 조성되지 않았고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토유물은 도금한 棺釘 이외 다른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무덤은 東下塚(1호분)의 매장묘일 가능성이 높으며, 主人公은 평천장을 한 東下塚(1호분) 피장자와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를 昌王이 계승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威德王의 안위를 지척에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던 당시 백제의 정계를 바로 세우는데 고군분투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中下塚(2호분)에서는 물론이고 능산리사지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데, 즉, 聖王의 부인이자 威德王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王室의 실권자로서 그녀는 당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상상은 단지 추정만이 아니라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창왕명사리감 뿐 만 아니라 금동대향로와 같은 고고유물의 존재에서도 그녀의 권위와 역량을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다.¹⁹⁾

IV. 益山 雙陵 武王說의 의문점과 피장자 검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백제 사비기의 또 다른 都城으로 추정되는 익산에도 왕궁 등 都城의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과 함께 ‘부여 왕릉원’ 석실을 규모와 석재 가공 정도에서 능가하는 석실인 雙陵이 존재하며, 특히 대왕묘에서는 일본 특산의 金松으로 만든 목관과 중국에서 받아 온 玉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이 출토되어 최근까지도 무덤의 主人公을 武王과 王妃일 것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김낙중,2021;386, 이문형,2022;188) 익산 雙陵은 석실의 규모와 구조, 석재의 가공도 및 부장품으로 볼 때 ‘부여 왕릉원’의 陵墓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오히려 규모면에서는 대형이고 구조와 부장품으로 보아 축조연대를 7세기 전 반경으로 추정하며, 武王과 관련된 기록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익산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雙陵을 武王과 王妃의 陵墓으로 추정하는 견해는 이제 거의 학계의 통설로 굳어져 있다.(최완규,2001·2003a·2003b·2007·2011·2016a·2016b·2018·2023, 이남석,2001·2014, 이도학,2003, 이병호,2015, 김낙중,2019·2021, 서현주,2017, 이성준,2018·2019, 이문형,2018·2022) 이런 상황에서 익산 雙陵의 피장자 실체에 대하여 필자가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고고자료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출토문자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에 대한 歷年代를 제시하고, 이에 정합하는 雙陵의 주인공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색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雙陵 대왕릉에서 수습한 人骨의 방사성탄소연대(¹⁴C)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이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조사된 익산 雙陵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왕릉에서 수습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은 치아 4개가 20~40세 여성의 것이고 석실 내부에서 수습한 토기가 신라계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국립전주박물관,2015;148~151) 이어서 2016년에는 『익산 쌍릉과 출토유물의 검토』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雙陵의 피장자에 대하여 그 동안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해 왔던 武王과 王妃의 존재를 부정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면서(이주현,2016;70), 雙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主人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러한 논란의 해결을 위해 익산시에서는 雙陵에 대한 재발굴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에 실시된 재발굴에서 100년 전인 1917년 雙陵 발굴을 주도한 谷井濟一가 석실에서 수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人骨이 담긴 상자를 대왕릉 석실 내부에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도면. 4-①)

상자에 담긴 人骨에 대하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

19) 中下塚(2호분)을 壽陵으로 聖王이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王妃의 죽음을 가정한 의견(신광섭,2006;114)도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 검토가 이어지지 않아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

조사한 결과, 한 개체분으로 판단되는 人骨이지만 왼쪽 무릎뼈와 왼쪽 목말뼈를 제외한 모든 뼈들은 조각이 나 있었으며 형태학적으로 구분 가능한 뼈 조각들은 총 102개로 분류되었다. 이 뼈 조각들에 대한 범의인류학적 감정에 있어 性別의 추정은 오른쪽 위팔뼈의 안쪽 위관절용기(내측상과)에 대한 비계측 검사 및 왼쪽 목말뼈와 오른쪽 넙다리뼈에 대한 계측 검사를 이용하여 性別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해부학적으로 확인된 뼈들에서 부피와 크기가 큰 경향을 나타내고 근육이 일어나고 닿는 뼈표지점들의 돌출 정도도 뚜렷한 소견을 보이는 등 출토 人骨의 性別은 男性으로 판단하였다.(카톨릭응용해부연구소,2021:8) 또한, 확인된 人骨의 나이는 최소 50대 이상 60대의 노년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으며, 넙다리뼈의 최대 길이로 산출한 키는 161.0~170.1cm로 추정되고, 620(68.2%)659 AD로 사망시점을 산출하였다. 특히, 사망시점은 정강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가속형 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14}C) 측정 결과이므로, 600년에 즉위하여 641년에 사망한 武王이 10대나 20대에 즉위한 경우, 사망할 때의 나이가 男性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雙陵 人骨의 추정나이와 비슷하며, 사망시점인 7세기 초반부터 중반쯤이라는 人骨 분석결과는 대왕릉이 익산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같은 시기에 왕권을 확립한 백제 武王의 陵墓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성준,2018:3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9:34)

그러나 雙陵 대왕릉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14}C) 측정치에 대한 해석은 관련 연구자들로 하여금 대왕릉 主人公을 武王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한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 즉, 수습한 人骨에 대한 분석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을 담당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Beta Analytic에 직접 의뢰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수행하면서, 연대측정의 정밀도 향상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시료를 이등분한 후 (주)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에 주어 각각 연대측정을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Acceptance test 결과 및 $\delta^{13}\text{C}$ 값, 연대오차 등을 고려했을 때, Beta Analytic에서 산출된 방사성탄소연대도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9:67) 나아가, 일반적으로 뼈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콜라겐을 추출해 진행하는데, 이 경우 산출된 방사성탄소연대에 콜라겐회전율(turnover rate)를 보정해야 하므로 기존연구 사례를 적용하여 56세 사람의 콜라겐회전율을 적용하여 대왕릉에서 수습된 人骨의 사망시점을 결정하였다. 또한, 무덤의 축조시점 및 매장이 사망 이후 수년 내에 이루어졌다면, 매장 주체의 사망시점을 대왕릉의 축조 시점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시료의 분석결과를 1표준편차(1 σ /68.2%)로 제시하며, 대왕릉의 축조시점을 620~670.AD로 추정하였다.²⁰⁾

하지만, 이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과 국제학회에 의해 제안된 교정곡선(IntCal 13)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데이터의 해석과 교정연대(cal BC or cal AD)를 歷年代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錯誤이다. Beta Analytic의 시료분석 결과를 콜라겐회전율(turnover rate)을 적용하여 보정한 후 제시한 『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보고서』 69쪽의 <그림 3> 雙陵 대왕릉의 축조 시점(Death Shift (Bone Beta-498945), Turnover)을 보면, 보고서에서 강조한 620(68.2%)670.AD의 1 σ 값과 함께 600(95.4%)680.AD의 2 σ 값도 제시되어 있다.(도면. 3-⑤)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있어, 1 σ (68.2% Probability)값은 3번 측정하면 2번, 2 σ (95.4% Probability)값은 20번 측정하면 19번 정도의 유효 수치가 나온다는 의미이므로 국제

20) ^{14}C 연대측정에 의한 歷年代 산출은 절대로 하나의 연대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기준에 SNU AMS에서 독자적으로 표현한 ‘연대 눈금 맞춤 결과(Calibrated Ages)’는 歷年代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이창희,2008:166~172)

학회 및 한국고고학회에서는 2σ(95% Probability)값에 의한 결과를 신뢰가능한 연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창희,2008:162~165) 따라서, 1σ(68.2% Probability)값의 분석치로서 대왕릉의 축조시점을 파악하려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효 값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더 이상 독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고학에서 ¹⁴C연대를 歷年代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고학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¹⁴C연대를 단순히 실연대 자체로서의 참고자료가 아니라 고고학적 정황과 조합하면서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가능성의 歷年代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이창희,2008:178)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대왕릉의 축조시점의 근거로 제시된 방사성탄소연대(¹⁴C) 2σ(95.4% Probability) 보정 값이 597~670.AD이므로 이 기간에 사망한 백제의 王으로는 武王(641년 3월 薨)외에도 威德王(598년 12월 薨)과 惠王(599년 ?월 薨), 法王(600년 5월 薨), 義慈王(600년 11월 薨)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도 대왕릉의 主人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 논리적이다.²¹⁾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여 왕릉원’의 능산리형석실의 축조시기에 대해 출토문자를 근거로 한 검토에서 대왕릉과 같은 현실의 횡단면이 육각형(평사천장식)인 석실은 6세기 4/4분기~ 7세기 1/4분기에 활발하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대왕릉을 7세기 2/4분기에 사망한 武王의 陵墓로 인식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처럼 같은 유구에 대한 고고학 분석법에 따른 결과와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릉을 武王의 陵으로 비정한 학계의 연구방법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왕릉에서 수습한 人骨의 연령은 법의인류학적으로 50세 이상의 男性 노인으로 판단되었고(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9:4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2021:7),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치아 4점에 대한 재분석에서도 人骨의 추정 연령은 40~50대로 파악되었다.(이성준,2018:317) 이는 42년간 王位에 있었던 武王의 실제 나이와는 차이가 나며, 서로 정합하지 않는다.²²⁾ 수습된 人骨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분석으로 추정된 연령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武王은 적어도 10대 초반에 王位에 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익산지역에서 貧母의 슬하에서 자란 薯童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 王位에 오를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최완규,2023:129~136)²³⁾

다음은 雙陵 대왕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에서 玉裝身具에 대한 해석의 의문이다.²⁴⁾ 이

21) Beta Analytic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1σ(68.2% Probability)값은 620~659.AD이며 2σ(95.4% Probability)값은 597~670.AD으로 검출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8:53)(도면. 3-⑥) 따라서 한국고고학회에서 신뢰 가능한 2σ(95.4% Probability)값의 기간에 사망한 王은 모두 5명이다. 이중 威德王은 525년생이므로 사망시 73세의 老人이므로 대왕릉 수습 人骨의 법의인류학적인 추정연령(50대 이상의 노인)과는 정합하지 않으며, 義慈王은 660년 중국으로 압송되어 11월 洛陽에서 病死하였으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22) 武王의 출생연대를 알려주는 기록이나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대략 60대 중반~후반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남정호,2015:143~144, 박현숙,2009:337)

23) 최근 『三國遺事』 奇異篇 武王條에 기술된 ‘薯童說話’ 가운데 武王의 탄생설화는 중국 漢 高祖 劉邦의 탄생설화와 비견되는 ‘君權神授’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武王은 익산지역에서 성장한 百濟系 王族이 아니라 馬韓系 세력의 걸출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馬韓의 인식이 뿌리 깊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던 익산지역의 馬韓系 세력은 薯童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遷都를 뒷받침하는 후원세력이 되었으며, 雙陵 소왕묘를 武王의 妃 무덤으로 추정하면서 이곳에서 발견된 石柱形 墓標石은 通天柱와 같은 성격으로 백제가 사비로 遷都한 이후, 크게 높아진 夫餘 繼承意識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장자의 출자에 대한 상징적 표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소왕묘 주인공의 출처를 백제 왕실의 公主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최완규,2023:140) 이 견해는 설화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武王과 善花公主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4) 대왕묘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결제의 완형토기도 논란이 되는 유물이다.(도면. 4-④) 보고서(국립전주박물관,2015, 『益山 雙陵』, 151)에 의하면, 이 유물을 신라권역에서 7세기 전반경에 유행한 小型罽으로 파악하였

玉裝身具는 1917년 대왕묘에 대한 발굴조사시 木棺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재질은 얼은 담회색을 띠며, 횡경은 2.5cm이고 타원형에 가까운 심엽형 고리로 상부 중앙에 몸체보다 한단 낮게 폭 0.6cm의 홈을 넓게 새겼다.(국립전주박물관,2015:50)(도면. 4-③) 이 玉裝身具는 北周 若干雲墓(578년) 출토품(員安志,1993, 劉雲輝,1996), 隋 姬威墓(610년) 출토품(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1959), 隋 煬帝(604~618년) 무덤 출토품(束家平·薛炳宏·秦宗林,2014)과 같은 것이며, 정방형의 과대 네귀통이와 한 가운데를 금못으로 고정하고 방형과대 아래로 타원형의 玉裝身具를 연결시킨 것으로, 帶金具의 垂下式이라 할 수 있다. 대왕묘에서 출토된 玉裝身具는 北朝~隋代의 고급관리들이 사용한 玉帶의 띠꾸미개로서 금속에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어, 隋 煬帝의 蹀躞金玉帶의 띠꾸미개에 달린 수하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도면. 5-②). 실물 대금구는 아니지만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 중 鬼形文塼에도 방형과판에 둥근 고리의 수식이 달린 허리띠가 표현되어 있는데,(도면. 4-②)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이 小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낙중,2021:412)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隋 煬帝의 13環蹀躞金玉帶와 같은 최고등급의 것으로 612년 백제의 武王이 隋에 朝賀하였을 때 煬帝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사²⁵⁾와 624년 唐 高祖가 武王을 ‘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한 것²⁶⁾과 관련하여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보거나 637년 唐 太宗이 비단 도포와 채색비단 3천단을 주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唐에서 수여한 金玉帶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낙중,2014a:166, 2021:412) 나아가 唐에서 衣服制가 제정된 것은 高祖 武德 4년(621년)이고 674년에 마련된 鈔帶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의하면, 문무관 3품 이상은 金玉帶 13과, 4품은 金帶 11과, 5품은 金帶 10과, 6·7품은 銀帶 9과, 8·9품은 鍮石帶 9과, 서인은 銅鐵帶 7과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국의 鈔帶制度가 재질과 과판의 수량으로 서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山本孝文,2005:308) 그중 玉은 문무관 3품이상의 최고위 관료나 王族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624년 이후 백제의 최고지배층이 사용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병호,2015:82)으로 玉帶의 위상과 시기로 볼 때, 그것을 소지하거나 착용할 수 있었던 主人公은 武王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여 왔다.(김낙중,2021:413)

선학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雙陵 출토 玉裝身具는 대왕묘의 축조시기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고자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백제 사비기 관련 유구와 공반유물의 曆年代 자료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으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고고자료이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는 문헌기록을 인용하면서도, 史料와는 정합하지 않게 해석하여 玉裝身具의 主人公을 武王에 맞추어 가는 듯하다. 즉, 唐이 성립한 후 高祖(618~626)대에 제정된 衣服制의 내용을 살펴보면, 1·2품은 金, 3~6품은 犀, 7~9품은 銀, 서인은 鐵로 鈔帶를 제작하였으므

으나 이와 비슷한 완형토기가 군산과 익산지역에서 백제 사비기 토기류와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미륵사와 왕궁리 유적에서도 동일한 기형의 완형토기가 출토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사비기 늦은 단계에 유행한 또 다른 형식의 백제토기로 보고 있다.(김낙중,2021:410) 그러나, 심하게 외반한 구연부와 환저상의 저부를 한 동일한 기형의 완형토기는 아직까지 백제의 사비기 토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기면을 고속 회전으로 물순질 한 점, 내면이 검게 그슬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장용 토기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용된 생활용기로 판단된다. 또한, 대왕묘의 석실 바닥에서 다소 뜬 상태로 비스듬히 떨어진 이 유물의 출토 상태는 『高麗史節要』의 忠肅王 16년(1329년)에 기록된 대왕묘 도굴 당시에 燈臺으로 사용한 후 버리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4-⑤) 또한, 포천 추동리12-1, 아산 장제리 아골 29-2, 김제 라시리 18-21, 창령 사리 1116번지-26 등과 같은 고려시대 유적에서 유사한 형태의 高麗陶器(盃A-외반구연)가 출토되고 있어(도면. 4-⑥)(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22:327~331), 고고학적 맥락으로 보아 대왕릉의 후퇴적 과정에서 후대 유물이 현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25) 『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十二年 春二月條

26) 『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二十五年 春正月條

로²⁷⁾ 玉裝身具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玉裝身具는 高宗 顯慶 1년(656년)이 되어서야 제정된 衣服制에서 문무관 3품 이상은 金玉帶 13銜를 착용하게 되므로²⁸⁾, 이때 비로소 唐에서는 金玉製 銜帶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정범,2017;119) 따라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를 唐 高祖가 武王을 ‘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한 624년이나 唐 太宗이 포상했다는 637년 기사와 관련하여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는 기존의 견해는 문헌 기록과는 전혀 정합하지 않는다. 또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처럼 원형의 수하식이 달린 허리띠는 唐式銜帶와는 이질적인 면이 있어 따로 環帶 등으로도 불리며, 北朝~隋代의 성립기에 唐式銜帶와 공존했던 것이나 初唐代의 이른 시기까지 성행하다가 본격적으로 唐式銜帶가 확산되면서 소멸한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山本孝文,2007;43~45, 최정범,2017;104~105)는 주목된다. 따라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는 唐으로부터 입수한 것 이라기보다는 당 수립(618년) 이전에 이미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시 백제사회에서 시행되었던 喪葬禮이다. 백제의 喪葬禮는 중국의 喪葬禮를 모범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관리가 죽은 후 官服을 입은 채로 장사지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관직을 맡은 자 뿐만 아니라 준관리 신분 칭호를 부여받은 여성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은 작위를 책봉 받은 자들도 포함되었다.(韋正,2022;26) 특히, 南朝시기의 제왕이나 고관대작의 대렴 시에는 官服 착용이 성행하였는데, 제왕은 袞冕服으로, 命官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公服으로서 황제가 내린 命服을 입혔다. 公服 이외에도 棺槨도 황제의 賻贈品으로 사여 받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백제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성행한 ‘朝服葬’이 적용되었는데²⁹⁾, 대략 4세기 말 ~ 5세기 전반 무렵을 시작으로 금동제 冠帽와 飾履를 중심으로 하는 착장 威勢品이 나타난다. 이들은 물론 喪葬儀節 전개상 소렴 혹은 대렴단계에 이루어진 것인데, 武寧王陵의 경우 ‘朝服葬’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이는 사비시기까지 이어졌다.(박순발,2023;200) 따라서, 武王은 600년 5월에 즉위하였으므로, 612년 隋에 朝賀하였을 때 煬帝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사³⁰⁾와 관련지어 玉裝身具가 전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唐이 성립된 618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唐에 朝賀하면서 새로운 관직과 그에 해당하는 官服을 武王은 수여 받았다. 특히, 武王이 逝去한 641년에는 백제의 使臣이 唐에 입조하여 武王의 죽음을 알리자, 唐 太宗은 玄武門에서 哀悼式을 거행하고 詔書를 내렸다. 이 때, 죽은 武王에게 光祿大夫(從2品)를 추증하고 賻儀를 후하게 내렸다는 기록³¹⁾으로 보아 武王의 葬儀時에는 唐 太宗이 하사한 公服을 착용하고 陵墓에 안장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³²⁾ 武王은 唐으로부터 2품에 해당하는 칭호를 받았으므로 唐 高祖(618~626)대에 제정된 衣服制에 따라, 1·2품이 착용하

27) 『唐書』卷二十四, 志 第十四 車服條 ... 至唐高祖 以赭黃袍 巾帶爲常服, 腰帶者..... 一品二品銜以金 六品以上犀 九品以上銀 庶人以鐵,

28) 『唐書』卷二十四, 志 第十四 車服條, 顯慶元年..... 其後以紫爲三品之服 金玉帶十三, 緋爲四品之服 金帶銜十一, 淺緋爲五品之服 金帶銜十, 深綠爲六品之服, 淺綠爲七品之服 皆銀帶銜九.....

29) 백제에서는 발굴된 분묘의 수량과 확인된 官服 관련 유물의 양을 대비해 볼 때,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에 반드시 官服을 입혔다고 볼 수는 없으며, 專用埋葬服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문헌기록도 없고 실물이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복식과 관련된 장식품이 전혀 출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장자에게 평상시에 있었던 옷이나 帶金具를 수반하지 않는 專用埋葬服을 입힌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견해도 있다.(山本孝文,2007;51)

30) 『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十二年 春二月條

31) 『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四十二年 春三月條 使者入唐 素服奉表曰 君外臣夫餘璋 帝舉哀玄武門詔曰 ...贈光祿大夫 賻賜甚厚

32) 중국의 朝服葬 기사를 근거로 무덤에서 출토되는 帶金具를 葬服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정대영,2006)

는 金帶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익산 雙陵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와 관련된 金玉帶는 唐 顯慶 1년(656년)에 제정된 衣服制에서 처음으로 文武百官에게 적용되었으므로, 武王이 在位하였을 때나 또는 葬儀時에도 金玉製鍔帶를 唐으로부터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대왕릉 木棺 내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사료와 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武王이 아님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으며 武王 이전에 逝去한 王이거나 王族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2018년에 진행된 雙陵 재발굴에서 수습한 人骨의 추정 연령(50대 이상 노인)과 치아에 대한 분석(40대 이상) 및 정강뼈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가속질량분석기(AMS)로 검출된 신뢰가능한 과학적 결과(600~680년 /95.4%)를 근거(이성준,2019:31~33)로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그 主人公을 비정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일 것이다. 향후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雙陵 武王說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대왕릉의 主人公이 武王이 아니라면, 소왕릉 피장자 王妃說 역시 성립할 수가 없다.³³⁾ 따라서 소왕릉 피장자에 대한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우선 대왕릉과 소왕릉 사이의 선후관계를 고고자료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의 연구가 있다. 雙陵 소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木棺에 사용된 도금투금구와 금동좌금구의 단면 형태 및 도안의 특성을 비교해 소왕릉이 대왕릉보다 먼저 축조되었다는 연구가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1918년에 작성된 「대정 6년도 추기 야쓰이 위원 수집품 목록」에는 소왕릉에서 출토된 도금투금구가 3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山’자형 장식부의 단면이 능형으로 입체감 있게 제작된 것 1점과 말각방향으로 평평한 것 2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합부의 너비도 장식부가 능형 단면인 것이 48mm, 말각방향 단면인 것이 33mm 내외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소왕릉 추정품인 금동투식좌금구의 결합홈 너비는 50mm이고, 대왕릉 출토 목관에 부착된 금동좌금구(2개)의 결합홈 너비는 39mm이다. 따라서 1918년 당시 소왕릉 출토품으로 보고된 3점 중 장식부의 단면이 말각방형이며 결합부의 너비가 33mm 내외인 2점은 원래 대왕릉 출토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를 전제로 입체감 있고 세련된 도안의 금동좌금구(소왕릉 추정품)와 도금투금구장식(소왕릉 출토품)이 평면적이며 도식화된 장식(소왕릉 출토 대왕릉 추정품)으로 퇴화되었다고 가정하였다.(이병호,2015:78~91) 또한 부여 능산리 7호분 출토 도금투금구와 중상층 출토 금동제투조관식을 제시하면서, 능산리의 집선문과 평면적인 장식요소가 소왕릉의 점선조 기법 및 입체감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능산리 中上塚·7호분→소왕릉→대왕릉’의 축조 선후 관계를 설정하고, 소왕릉을 善花公主의 陵으로 비정하였다.(도면. 5-①)(이병호,2017:341~342)³⁴⁾

그런데, 이에 대하여 유물의 출토 맥락과 조사 기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

33) 기존에 소왕릉 피장자가 武王의 妃일 것이라는 판단은 고고학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대왕릉 주인공이 武王이라는 전제 아래, 『高麗史』의 俗說과 설화적인 성격이 강한 『三國遺事』 등의 기록물을 근거로 성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왕릉 主人公이 武王이 아니라면 소왕릉 王妃說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왕릉 피장자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4) 『三國遺事』 미륵사 창건연기설화를 보면, 武王은 薯童이었고 武王妃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善花公主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2009년에 발굴된 미륵사 서석탑 사리봉영기 내용에는 善花公主가 아닌 佐平 沙宅積德의 딸이 王妃였고 미륵사 창건도 이 沙宅積德의 딸이 원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마디로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연기설화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지금까지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로 고고학 학자의 고백(조유진,2016:10)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왕릉과 소왕릉 출토품을 나누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국립전주박물관, 2015; 147), 소왕릉 투금구의 결합부와 대왕릉 좌금구의 결합홈을 대조하여 너비가 좁은 소왕릉 출토품 2점을 대왕릉과 관련지어 본 것은 유의미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능산리 中上塚과 7호분은 聖王이나 威德王의 陵으로 거론되지 않는 육각형 단면의 單葬이며, 석실의 규모도 큰 차이가 없어 惠王과 法王 또는 그와 관련된 왕실의 陵墓로 추정하면서 惠王부터 武王까지의 짧은 기간에 ‘능산리 中上塚·7호분→소왕릉→대왕릉’의 선후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투금구와 좌금구, 투조관식의 장식요소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해하면서도, 다만, 당시에 구축된 모든 자료를 검증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이성준, 2019; 29~30)

따라서, 소왕릉과 대왕릉의 선후관계는 출토맥락이 애매한 유물에 대한 명쾌한 분석 뿐만 아니라 출토문자를 근거로 한 석실유형의 설정과 석실 내 세부적인 속성의 유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문제의 해법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³⁵⁾ 이는 소왕릉에 대한 재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석실의 형태와 규모 및 입지 환경 등의 속성이 대왕릉과 서로 대동소이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³⁶⁾(도면. 5-③,④) 즉, 소왕릉은 석실의 규모는 길이 343cm, 너비 128cm, 높이 175cm이고, 현실 천장의 횡단면은 육각형으로 ‘부여 왕릉원’에 분포한 여러 고분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므로 피장자는 王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왕릉은 석실의 구조에 있어서 ㉠현실은 단벽 1매와 장벽 2매의 화강암제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현실 중앙에 대형 관대(길이 245cm, 너비 63cm, 높이 20cm)가 1개 설치되어 있고 ㉢문틀식 현문구조에 짧은 연도(길이 50cm, 너비 110cm 내외)가 설치되었으며 ㉣1매의 판석으로 현실과 연도를 폐쇄한 것 등으로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대왕릉과 소왕릉은 동일한 조묘집단의 기술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규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석실의 구조와 축조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³⁷⁾(신광섭, 2006; 106) 이는 고분을 축조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매우 근접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결국 고분의 主人公이 逝去한 시점 또한 매우 근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威德王(598년 12월 薨)³⁸⁾과 惠王(599년 ?월 薨)³⁹⁾, 法王(600년 5월 薨)⁴⁰⁾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에 3명의 君主가 차례로 逝去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백제 웅진기 및 사비기에 제작된 출토문자 자료를 해당시

35) 소왕릉에서 출토된 금동도금투금구와 동일한 것이 西上塚(4호분)과 中上塚(5호분)에서도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동일한 형식의 도금투금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3기 석실의 피장자는 사망시점이 서로 근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6) 雙陵은 익산시 필봉면 석왕동 왕묘리라는 곳에 2기의 陵이 남북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2기 모두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서로 약 180m 정도 떨어져서 각각 조성되어 있는데, 북동쪽에는 대왕릉이, 남서쪽에는 소왕릉이 위치한다. 雙陵이 입지한 구릉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왕릉과 대왕릉은 각각의 낮은 구릉의 정상에 입지해 있는데, 이는 각 고분 主人公의 성격이 독립된 인물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일한 구릉상에서 서로 연결하여 조성되어 夫婦墓로 파악하고 있는 다른 고분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雙陵’이란 명칭이나 『高麗史』의 俗說 등을 근거로, 소왕묘와 대왕묘를 夫婦墓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근거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7) 中上塚(5호분, 도면. 5-⑤)의 구조도 雙陵과 공통적인 속성이 다수 보이므로 이 3기의 능묘는 동일한 조묘집단에 의해 서 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 단면이 육각형을 이룬 中上塚과 雙陵은 고임석의 기울기(고임각)에 있어 5°이상 차이가 나므로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조묘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능산리형석실 고임각의 변화와 주요 능묘의 피장자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지면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8)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威德王 四十四年 冬十二月 王薨 群臣議諡曰威德

39)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惠王 二年 王薨 諡曰惠

40)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法王 二年 夏五月 薨 上諡曰法

기에 축조된 능산리형석실의 특징 및 변화과정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를 정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방법에 비하여 논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부여 왕릉원’의 주인공을 새로이 비정하는 작업은 聖王 ~ 武王에 이르는 사비기 陵墓에 대하여 부정합하였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최선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역사가의 話頭일 것이라 생각한다.⁴¹⁾

V. 맺음말

백제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당대 백제인들이 남긴 기록인 출토문자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특히, 백제사에서 정치·불교의 단면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능산리사지 석제사리감 및 왕흥사지 석제사리감과 청동제사리함 그리고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당대의 기록물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무렵의 백제왕실의 사리신앙과 왕실사찰에 대한 창건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사실 미륵사지 서석탑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는 문헌연구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료의 일부를 보완해 주는 최고급 문헌정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양상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자료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리봉영기에 기록된 字句의 해석과 새로운 사실의 확인 등에 열중하거나, 기존 연구와의 정합 여부에 몰두하는 연구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출토 맥락이나 형태적인 변화양상과 당시 문화생활의 결과물인 고고자료와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는 연구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지금이라도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편, ‘부여 왕릉원’은 백제가 遷都한 이후 왕실에서 조성한 그들 家系の 陵園으로서, 聖王 ~ 威德王에 이르는 사비기의 王과 王族이 永眠해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일부 陵墓의 피장자에 대하여 일련의 연구가 일단락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백제 사비기 지배층의 사회적인 인식과 불교의 수용능력을 반영하는 석제사리감의 세부적인 형태나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를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에 적용하여 歷年代를 추정해 보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주인공을 그려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聖王이 될 수 없으며, 雙陵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근거로 주인공을 武王으로 파악하거나,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에 대한 해석에서 문헌기록과 정합하지 않는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雙陵 武王說의 재검토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부여 왕릉원’에 있는 中下塚(2호분)의 주인공은 聖王의 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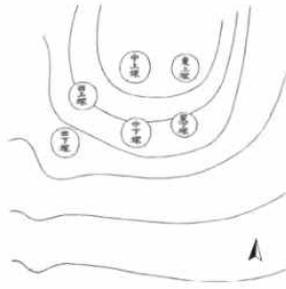
41) 문헌사료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오는 ‘王興寺’를 익산의 ‘彌勒寺’로 파악하면서 왕궁리 궁성의 건립 주체를 王子 惠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익산 및 그 주변지역은 王子 惠에게 分封된 지역으로 惠王에서 法王, 武王으로 이어지는 백제 말기 왕실에 있어 물질적·정신적 기반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최연식, 2012:1~35) 이에 의하면, 法王과 그의 집안이 익산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가 王位에 올라 父王인 惠王의 명복을 빌며 왕실의 願刹인 王興寺를 익산지역에 건립하려 한 것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지역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를 통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백제사회에서 죽은 국왕과 왕실구성원을 위하여 사찰을 만들어 명복을 빌고 신성시 하는 작업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익산 ‘彌勒寺’의 창건과 익산지역의 개발을 武王으로만 일관되게 연결지어 인식하여 왔던 학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신선한 탁견으로, 출토문자를 고고학 자료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雙陵의 피장자를 새로운 인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 본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人이며, 武王의 陵墓로 정설화 되어 있는 益山 雙陵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접목시켜 종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主人公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聖王~武王에 이르는 백제 사비기의 陵墓에 대한 비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출토문자 자료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을 추적해 볼 때, ‘부여 왕릉원’ 陵墓의 主人公에 대한 새로운 비정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中下塚(2호분)이나 益山 雙陵의 主人公에 대하여 문헌기록이나 고고자료와 정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陵墓로 비정하거나, 당시의 역사를 描寫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江湖諸賢의 슬기로운 판단에 힘입어,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올바르게 정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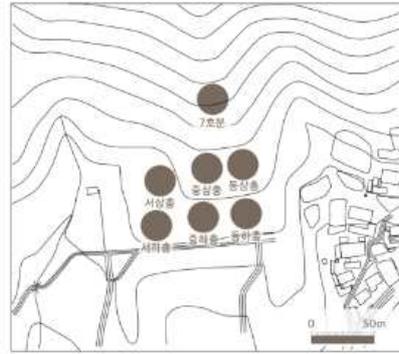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나주 복암리 3호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
 국립부여박물관, 2000, 『능사-부여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진전보고-』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능산리-부여 능산리공설운동장 신축 예정부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왕흥사지-목탑지 금당지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8,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목제시편 절대연대측정」 (연구용역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보고서』 .
 국립전주박물관, 2015, 『益山 雙陵』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6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고려도기 IV』 .
 부여군, 2008, 『부여 능산리고분군 동하층 보존환경조사 보고서』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 『익산 쌍릉 -조사보고서-』 .
 강원표, 2016, 「능산리고분군 개요」 『유리건관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국립중앙박물관.
 강인구, 1977, 『백제고분연구』, 일지사.
 고유섭, 1975, 『한국 탑파의 연구』, 동화출판사.
 김규운·양숙자, 2016, 「부여 능산리고분군 성격에 대한 재고」 『문화재』 49권2호.
 김길식, 2008, 「백제 시조 구태묘와 능산리사지 -구태묘에서 묘사로-」 『한국고고학보』 69.
 김낙중, 2014a, 「묘제와 목관을 통해 본 익산 쌍릉의 의미」 『문화재』 47-4,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낙중, 2014b, 「고고학적 성과 및 의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김낙중, 2019, 「서평 『부여 능산리 1호분(東下塚)』 (국립부여박물관)」 『백제학보』 29호, 백제학회.
 김낙중, 2021,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김연수, 2020, 「백제의 사리장엄에 대하여」 『동원학술논문집』 2, 국립중앙박물관.
 김연수, 2003, 「백제의 사리장엄에 대하여」 『백제금동대향료』, 국립부여박물관.
 김태식, 2017, 「부여 능산리고분사지」 『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기록화사업』, 부여군.
 김현용·오정현, 2014, 「사리장엄 발견 및 수습」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남정호, 2015, 「백제 무왕의 왕비와 의자왕의 생모에 대한 고찰」 『역사교육논집』 55, 역사교육학회.
 박순발, 2023, 「무령왕릉과 백제의 상장의례」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국립공주박물관.
 박현숙, 2009, 「백제 무왕의 익산경영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6, 고려사학회.
 서현주, 2016, 「고대 갑천유역 백제 사비기 고분의 분포와 역사적 의미」 『백제연구』 63집.
 서현주, 2017, 「백제 사비기 왕릉 발굴의 새로운 성과와 역사적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88, 한국고대사학회.
 신광섭, 2006, 「백제 사비시대 능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태영,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 경관에 대한 시론」 『백제 능산리 1호 東下塚』 (2019 특별전).
 韋 正, 2022, 「魏晉南北朝墓葬制度略述」 『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 국립공주박물관.
 오동선, 2019, 「영산강유역권 사비기 석실의 변천과 의미」 『한국고고학보』 112집.
 이귀영·박대남, 2010,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의의」 『백제 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남석, 2000, 「능산리고분군과 백제왕릉」 『백제문화』 2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이남석, 2001, 「백제고분과 익산 쌍릉」 『마한·백제문화』 제15집,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남석, 2002, 「백제의 고분문화」, 『백제 묘제의 연구』, 서경문화사.
 이남석, 2014, 「익산 쌍릉과 백제유적」 『사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문화사.
 이도학, 1995, 「부여 능산리 출토 사리감 명문의 의미」 『서울신문』, 11월 6일자.
 이도학, 1996, 『꿈이 담긴 한국고대사 노트』 (하),
 이도학, 2003, 「백제 무왕대 익산천도설의 재검토」 『경주사학』, 경주사학회.

- 이동식·이연경 2014, 「사리장엄 매장환경 분석」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 이문형, 2018, 「익산 쌍릉(대왕릉)의 새로운 인식」 『백제왕도 익산』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익산시.
- 이문형, 2022, 「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쌍릉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106.
- 이병호, 2015, 「백제 사비기 익산 개발 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 6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병호, 2017, 「일제강점기 익산지역의 고적조사와 쌍릉 출토품」 『백제문화』 제56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 이성준 외, 2018, 「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 제109집, 한국고고학회.
- 이성준, 2019, 「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 『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이주현, 2016, 「익산 쌍릉의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 『익산 쌍릉과 출토유물의 검토』, 국립전주박물관.
- 이주현, 2017, 「송산리6호분 문양전의 성격과 무령왕릉의 역연대」 『한국고대사탐구』 27.
- 이주현, 2019,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조영가계와 피장자」 『한국고대사탐구』 32.
- 이창희, 2008,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원리와 활용」 『한국고고학보』 68집.
- 이한상, 2009, 「미륵사지석탑출토 은제관식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16.
- 장경호, 1988, 「백제 사찰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애, 2020, 「백제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봉안기의 정치적 성격」 『목간과 문자』 25호.
- 장재원, 2020, 「사비도성 내 묘역의 조성과정과 확장」 『한국고고학보』 115집.
- 정대영, 2006, 「백제 출토 중국계 유물의 정치사회적 함의」 『백제 생산기술의 유통과 정치사회적 함의』.
- 주경미, 2002, 「한국 고대 사리장엄에 미친 중국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235, 한국미술사학회.
- 주경미,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 주경미, 2014,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성격과 의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주경미, 2018, 「백제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구와 6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 『백제연구』 67.
- 조유진, 2016, 「백제 왕도 익산과 쌍릉」 『익산쌍릉의 정체성 규명과 향후과제』,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조은경, 2011, 「미륵사지석탑의 구조체계와 축조해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득염, 1990, 「백제계 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환, 2023, 「聖王의 대통사 창건 목적과 의미」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국립공주박물관.
- 최연식, 2012, 「미륵사 창건의 역사적 배경」 『한국사연구』 159.
- 최완규, 2001, 「익산지역의 백제고분과 무왕릉」 『마한·백제문화』 제15집,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완규, 2003a, 「익산 쌍릉의 재검토」 『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익산시.
- 최완규, 2003b, 「익산지역 무덤 축조세력과 쌍릉(무왕릉)」 『익산 미륵사와 백제』 일지사.
- 최완규, 2007, 「분묘유적에서 본 익산세력의 전통성」 『마한·백제문화』 제17집,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완규, 2011, 「익산지역 무덤 축조세력과 쌍릉(무왕릉)」 『익산 미륵사와 백제』 일지사.
- 최완규, 2016a, 「전북지역 마한백제무덤의 양상과 그 의미」 『백제학보』 제18호, 백제학회.
- 최완규, 2016b, 「백제사비기 석실분과 익산 쌍릉」 『익산 쌍릉의 정체성 규명과 향후 과제』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완규, 2018,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백제왕도 익산』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익산시.
- 최완규, 2023, 「백제 무왕의 천도와 익산」 『동아시아 속의 고도 익산』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익산시.
- 최정범, 2017, 「중국 당식 대장식구의 등장과 전개」 『중앙고고연구』 제22호, 중앙문화재연구원.
- 하승철, 2017, 「남해 남치리 백제고분의 출현과 그 배경」 『백제학보』 제19호, 백제학회.
- 한정호, 2013, 「백제 불탑 사리장엄의 조사현황과 특징」 『백제사찰연구』.
- 허윤영, 2017, 「6~7세기 부여지역 백제 횡혈식석실묘의 시·공간적 분포연구」, 공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카톨릭응용해부연구소, 2021, 「대왕릉 출토 인골 법의인류학 분석 결과보고서」 『익산 쌍릉-분석보고서-』.
- 黑板勝美, 1974, 「朝鮮史蹟遺物調査復命書」 『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 有光教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 4.
- 山本孝文, 2002, 「백제 사비기 석실분의 계층성과 정치제도」 『한국고고학보』 47.
- 山本孝文, 2005, 「한국 고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山本孝文, 2006, 「사비기 석실의 기초편년과 매장구조-부여 염창리·능산리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3집.
- 山本孝文, 2007, 「백제의 환대에 대하여」 『호서고고학』 16.
- 吉井秀夫, 1992, 「熊津·泗泚時代 百濟 橫穴式石室의 基礎研究」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鐘方正樹, 1996, 「左右と男女」 『網干善教先生古稀記念 考古學論集』.
-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9, 「西安郭家灘隋姬威墓清理簡報」 『文物』 59-8, 文物出版社.
- 員安志, 1993, 『中國北周珍貴文物』, 陝西人民美術出版社.
- 劉雲輝, 1996, 「北周若干雲與其玉帶考」 『歷史文物』 9-7(通卷72), 國立歷史博物館.
- 東家平·薛炳宏·秦宗林, 2014, 「江蘇揚州曹壓隋煬帝墓考古成果專家論證會紀要」 『東南文化』 第237期.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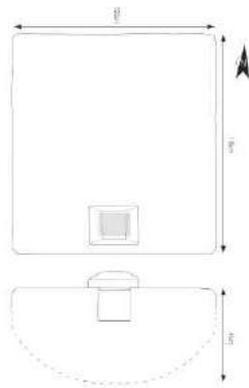
②



③



④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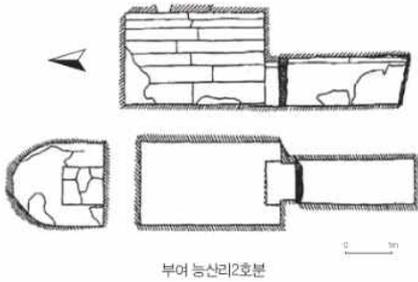
<도면 1> ① 능산리고분군 배치도(1915년) ② 능산리고분군 배치도(2022년) ③ 능산리사지 석제사리함 ④ 능산리사지 석제사리함 탁본 ⑤ 왕흥사지 석제사리감 모식도 ⑥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①



②



부여 능산리2호분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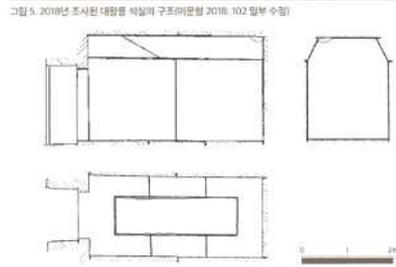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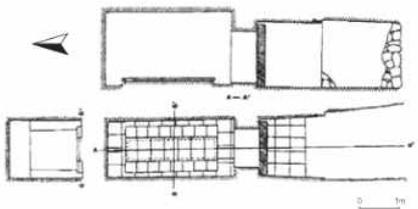


그림 5. 2018년 조사된 대왕릉 석실의 구조(문헌 2018. 102 일부 수정)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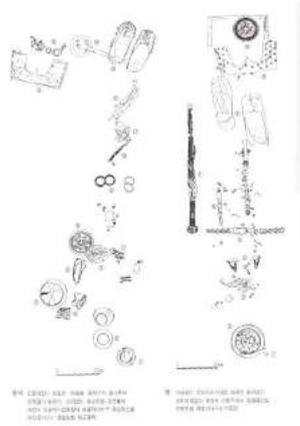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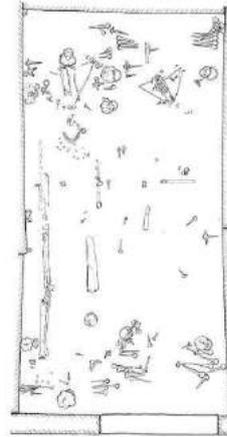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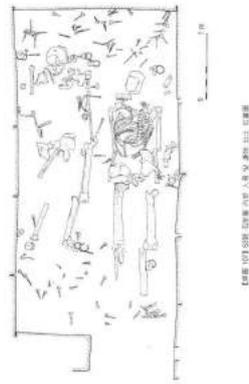
<도면 2> ①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 ②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영기 ③ 능산리 中下塚(2호분) 평·단면도 ④ 익산 雙陵 대왕릉 평·단면도 ⑤ 능산리 東下塚(1호분) 평·단면도 ⑥ 능산리고분군 전경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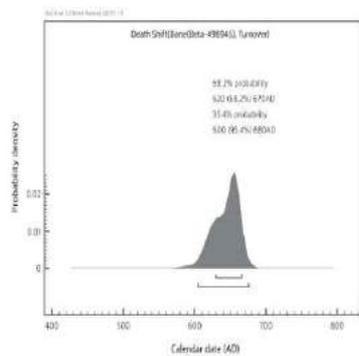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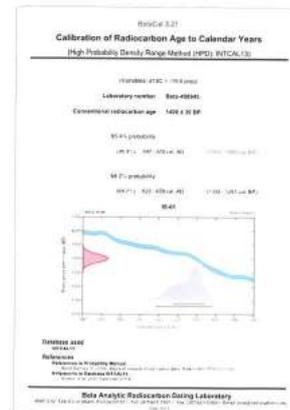
④

그림 3. 익산 대왕릉 (대왕릉의 축조 시점



⑤

Appendix C. Beta Analytic SA-3AC 방사성탄소 측정소 (연표)



⑥

<도면 3> ① 武寧王陵 내부 유물 출토상태 ② 능안골 36호묘 내부 모습 ③ 능안골 53호분 내부 모습 ④ 中下塚 석실 내부 유물 배치도(1915년) ⑤ 익산 대왕릉 축조 시점 AMS 측정 결과표(라드피온 연구소) ⑥ 익산 대왕릉 수습 인골 AMS 측정 결과표(Beta Analytic)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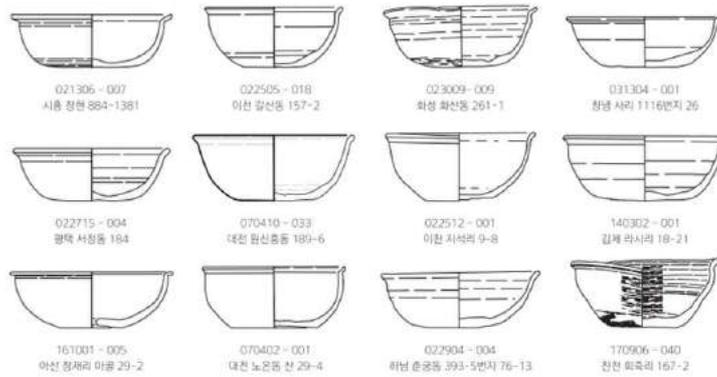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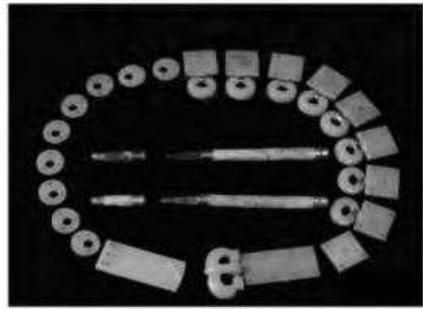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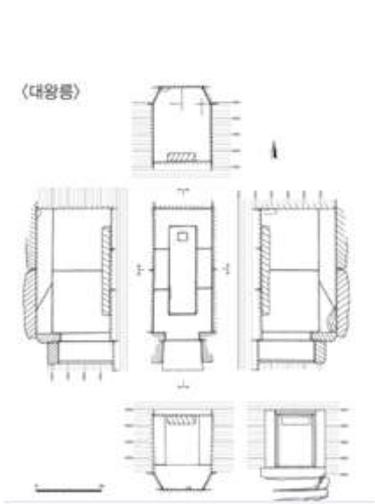
<도면 4> ① 雙陵 대왕릉 내부 및 인골함 ② 부여 외리 귀형문전 ③ 雙陵 대왕릉 출토 옥장신구
④ 대왕릉 출토 완형도기 ⑤ 익산 대왕릉 내부 모습(1917년 발굴) ⑥ 고려도기(盃A-외반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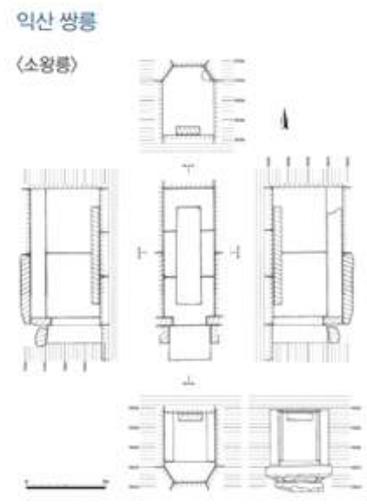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도면 5> ① 사비기 장식금구 변화 모식도 ② 수 양제릉 출토 옥대 ③ 雙陵 대왕릉 평·단면도 ④ 雙陵 소왕릉 평·단면도 ⑤ 中上塚 내부 모습(1915년) ⑥ 東下塚 내부 모습(2018년)

[토론문]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을 읽고

이문형(원광대학교)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을 읽고

이문형(원광대학교)

현재 학계에서는 백제 횡혈식석실묘(묘)은 중국의 묘제에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덧널무덤(목곽묘)은 서한(西漢)시대를 접어들면서 점점 쇠퇴하고 동한(東漢)시대에 이르러 벽돌(전축)·돌방무덤(석실)이 한(漢)제국 각 지역에서 유행하게 되고 이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의 무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황효분 2006).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벽돌(전축)무덤이 유행하게 되는 것은 석재의 채취보다 상대적으로 황토의 수급과 기와의 생산체계 및 건축 기술의 발달로 전돌의 속이 빈 공심전을 사용함으로써 거대한 무덤 방(전실-후실-축실 등) 축조에 따른 하중 등의 제약을 극복한 결과로 이해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백제의 횡혈식석실묘는 벽돌보다는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는데 한성시기에 축조된 일부 횡혈식석실묘에서는 벽면에 회(灰)칠한 흔적이 확인된 예도 보고된 바 있다(가락동 3호분, 성남 판교 16구역 가지점 9호석실분 등).

현재 학계에서 백제 횡혈식석실묘의 변화 발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첫째, 석실의 평면형태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 변화한다. 둘째, 축조 석재는 벽돌형의 할석-할석(괴석형)·판석(장대형) 혼용-판석으로의 변화가 상정되는데, 이는 기술의 척도나 재료 습득의 용이성 등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셋째, 연도의 위치는 좌·우측의 편재된 것에서 중앙으로 정형화되며, 형태는 할석을 이용한 개구식에서 판석을 이용한 문틀식으로 변화한다. 넷째, 천장의 형태는 평면형태와 비례하여 궁륭식-터널식(아치식)-고임식·조임식-수평식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원형천장에서 평천장계로 변화함을 의미한다(이문형, 2012). 결과적으로 횡혈식석실묘는 묘실의 평면형태에 따라 천장 구조가 변화하며, 이는 축조재료-연도형태-연도위치 등 석실의 세부속성과 맞물려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문형 2014).

이번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의 발표문은 기존 학계의 시각 즉, 성왕의 능으로 알려진 ‘중하총’과 무왕의 능으로 알려진 ‘익산쌍릉(대왕릉)’의 견해를 부정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백제 무덤을 공부하고 익산쌍릉을 직접 조사한 연구자로서 선생님의 논지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백제 사비유형 횡혈식석실묘의 천장구조(터널식-고임식-수평식)의 변화 양상을 백제 석탑의 사리장엄구 사리감의 구조와 동일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사리봉양과 인간의 묘제를 직접 대입하여 비교할 수 있을까? 창왕명사리감이나 왕흥사지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는 1개, 혹은 2개의 부재를 조립한다면 횡혈식석실묘는 수 개의 부재를 조립하는 완전체의 건축 구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배층의 묘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봉분으로서의 탑 본연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리봉안에 묘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백제 불교건축의 발달된 측면을 석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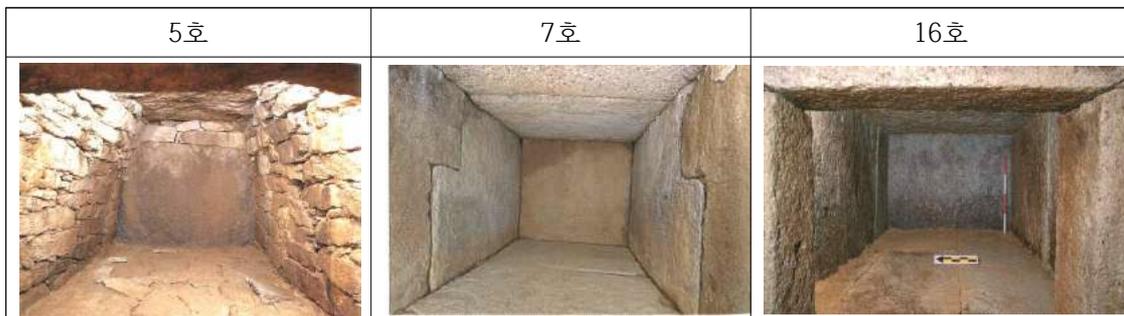
구조와 관련지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견해(조은경 2011)'에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무덤이 축조하고 있고 그 전통 아래에서 새로운 요소가 접목되어 변화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을 전통과 보수성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표자가 제시한 미륵사지 심초석과 그 상부의 2단 받침석, 그리고 상부의 대형판석을 덮은 구조를 사각으로 판단하고 계신데 토론자 역시 고임식, 즉 육각으로 보여진다(조은경, 2011). 결국 연구자별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림 1> 고임식(단면육각형) 횡혈식석실묘 예



2. 석제 사리감의 형태에 따라 A유형(丁亥年/567, 터널형)→B유형(丁酉년/577, 육각형)→C유형(己亥年/639, 방형)으로 변화를 상정하면서 터널형 천장구조를 가진 중하층을 6세기 3/4분기, 단면육각형의 고임식 천장인 동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여 왕릉원의 고분과 익산 쌍릉을 6세기 4/4분기로, 마지막으로 수평식 천장을 지닌 동하층을 미륵사지 석탑 심주석(C유형)에 견주어 7세기 2/4분기로 편년하였다. 그러면서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묘와 16호묘에서 출토된 은화관식의 사례로 고임식과 수평식 천장유형이 병존하였을 견해(이문형 2022)를 은화관식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부정하고 있다. 은화관식은 품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여 중앙에서 사여, 착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은화관식으로 시기를 판단하기보다는 석실의 형태와 출토유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7호-16호 횡혈식실묘의 천장 형태와 출토유물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나주 복암리 고임식 및 수평식 횡혈식석실묘



천장과 축조 석재의 형태로 살펴보면 5호(고임식-할석)→7호(수평식-판석)→16호(수평식-판석)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7호는 판석을 결구한 반면 16호는 1매의 판석을 사용한 것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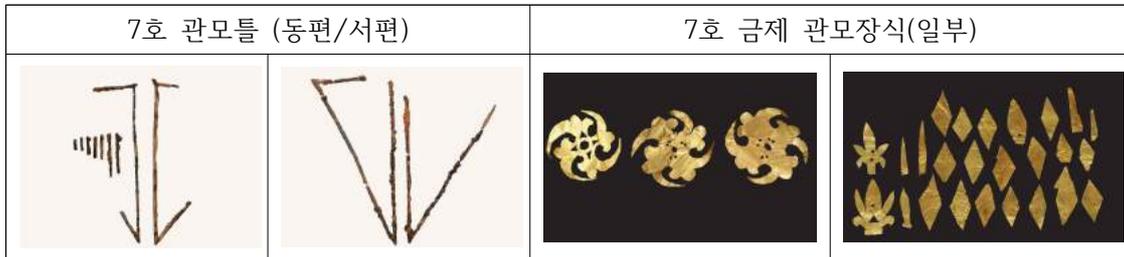
세부적인 시기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그림 2> 해당 횡혈식석실묘 출토유물



하지만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기의 석실묘에서 모두 피장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관식(금/은제)이 출토되었다. 5호와 16호에서는 은화관식이, 그리고 7호 석실묘에서는 2개체분의 관모틀과 금제 관모장식이 출토되었다.

<그림 4> 7호 석실묘 출토 관모틀 및 금제관모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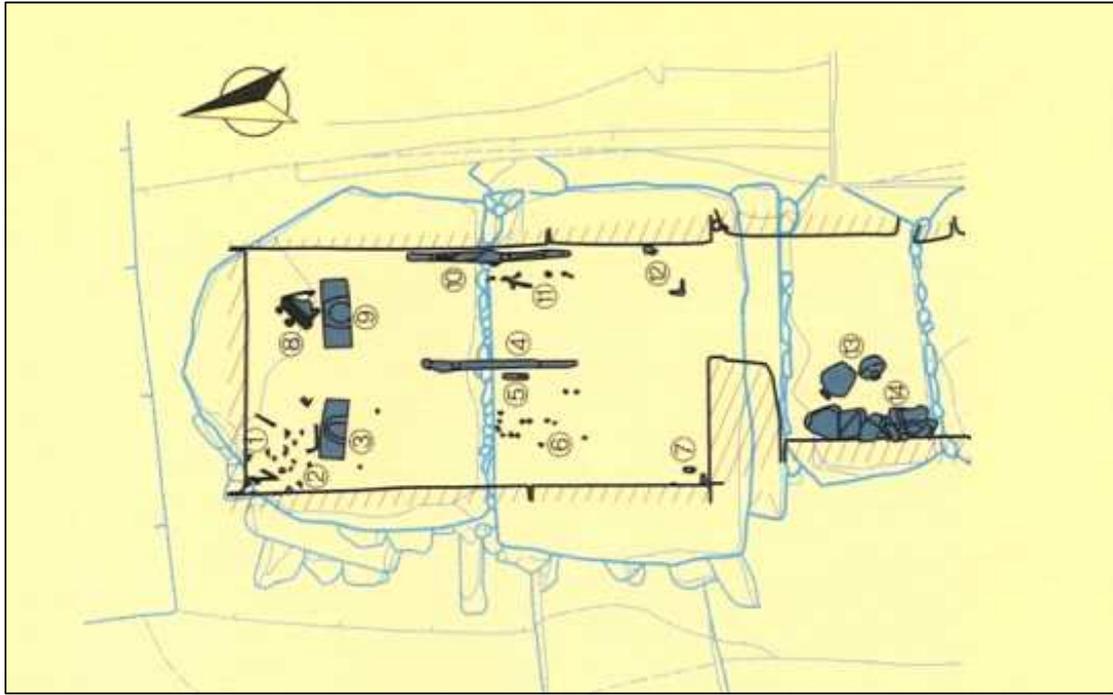
사비시기에 단행된 백제 의관규정을 보면 금제관식은 왕만이 사용하였다. 이 같은 금제 관모장식이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으로 무령왕릉을 들 수 있다.(물론 그 수량이나 형태에 있어 무령왕릉과 비교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 같은 금제장식이 출토된 석실묘 대부분은 웅진시기로 보고 있다. 또한 함께 출토된 규두대도, 삼환두대도, 과대교구 등도 웅진시기로 볼 수 있으며, 석제두침에서도 이와 같은 시기적 정황을 엿 볼 수 있다. 다만, 금제관모장식이 철제 관모테에 부착되었다는 점에서 웅진-사비시기 모두 해당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5호 석실묘에서 출토된 규두대도나 과대교구(은제)를 올려볼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사비시기 백제 지방관 성격의 은제관식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출토유물에 따른 시간의 순서는 7호→5호→16호 피장자 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출토유물과 고분의 형식으로 볼 때 그 시간의 폭이 1세대를 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위덕왕이 30세에 왕위를 계승하여 이후 48년간 왕위에 있던 시기를 생각하면 고임식/수평식의 횡혈식석실묘의 형식이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편적인 유물만을 대상으로 편년하기 보다는 무덤의 구조와 공반유물, 추가장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표자가 앞서 열거한 출토유물을 전세에 따른 양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할 수 있기에 제7호 횡혈식석실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한다. 전세품이라 파악하기에 모든 유물이 피장자에 착장

된 듯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림 5> 북암리 3호분 7호석실묘 실측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6, 재편집)



3. 중하층(2호분)의 피장자(성왕) 부정의 근거로 발표자의 제(諸)견해와 도굴되어 교란된 일제강점기 조사를 취신하며 고분 관련 연구자들을 고고학적 근거 없이 정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성과 쉽게 변하지 않는 보수성이다. 이와 같은 무덤에 인식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전통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무덤이 축조되는 과정에서도 그 전통의 잔상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요 특징으로 고고학에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며, 형식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시한 <표 1>과 <표 2>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표 1> 공주왕릉원 주요 속성표

송산리 왕릉원	평면 형태		천장 형태		축조 석재		바닥		연도 위치		현문 구조		현문 폐쇄		배수 시설	호석
	방향	장방향	공룡식	터널식	할석	전돌	부석	관대	편재	중앙	개구식	문틀식	할석	전돌		
1호~4호분	■	■	■		■		■		■		■		■		■	
무령왕릉/6호분		■		■		■		■		■		■		■	■	■

중하층에 관해 발표자의 제견해는 연구자 입장에서 존중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자료를 살펴보자. 발표자는 일제강점기 조사 도면을 들어 비록 도굴된 상태지만 ‘중하층의 석실 내에는 시상 左側으로 단독장이 실시된 것(윤태영 209)’이라는 견해에 동조하여 부부합장의 견해를 부정한 뒤 ‘시상에 안치된 인골 중 머뼈는 관대의 남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므로 중앙지점에 위치한 頭蓋骨은 중하층을 도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골 교란 때문이라는 견해(김태식

2017)에 찬동하고 있다.’ 여기에 부부합장 시의 남녀의 위치를(두향-남쪽 기준) 들어 ‘중하층의 경우 시상의 좌측(서쪽)에서만 인골과 목관의 잔유물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주인공은 분명히 여성이며 夫婦獨葬으로 안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발표자 견해에 맞춘 언어의 유희(遊戱)라 생각된다. 중하층은 발표자가 서술했듯 현실 내부의 정황은 도굴로 교란되어 관련 연구자들은 완전한 자료로 취신하지 않는다. 더불어 중하층에는 시신을 받치는 관대나 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검이 안치된 목관을 그냥 현실 바닥에 두었을 뿐이다.

4. 익산쌍릉 무왕설에 대해서도 논지의 전개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익산 쌍릉의 대왕릉이 무왕릉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가 인골 분석에 대한 데이터 적용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제시한 620(68.2%)-659 AD의 1σ값 보다는 600(95.4%)-680 AD의 2σ값이 신뢰가능한 연대로 그 보정값이 597~670 AD이므로 익산 대왕릉의 주인공을 무왕 이외에 위덕왕-혜왕-법왕-의자왕까지 검토 대상이라며, 노년인 위덕왕(73세)과 중국에서 사망한 의자왕은 제외하였다. 더불어 앞서 본인이 주장한 육각형 천장의 황혈식석실묘는 7세기 1/4분기에 활발히 조영되므로 7세기 2/4분기에 사망한 무왕의 능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왕릉의 자연과학적 분석은 인골만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목관의 목재편을 비롯하여 인골이 보관된 목함, 그리고 조사후 석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목재 쇄기 등도 함께 분석되었다. 베타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베타연구소 인골 및 목재편 분석 결과

Sample name	Lab. No.	Material	Amount (mg)	12C (μA)	δ ¹³ C (‰)	14C age (BP, 1σ SD)	Calendar age (yr AD, 1σ SD)
인골(허벅지 뼈)	Beta-498945	인골			-19.0	1400 ± 30	620 (68.2%) 659 AD
목재 유골함(관대 상부)	Beta-496640	나무			-23.1	160 ± 30	1,729(34.8%) 1,780 AD
							1,669(13.1%) 1,690 AD
							1,925(12.7%) 1,945 AD
							1,798(7.6%) 1,810 AD
목재 뼈기편 1 (석실 연도 밑구)	Beta-496641	나무			-22.1	200 ± 30	1,764(36.8%) 1,801 AD
							1,660(19.2%) 1,680 AD
							1,938(12.3%) 1,950 AD
목재 뼈기편 2 (석실 연도 밑구)	Beta-496642	나무			-23.6	140 ± 30	1,834(19.8%) 1,878 AD
							1,724(19.5%) 1,764 AD
							1,916(12.0%) 1,939 AD
							1,679(9.6%) 1,698 AD
목관편 1(관대 상부)	Beta-496643	나무			-22.7	1,650 ± 30	380 (57.0%) 424 AD
							351 (11.2%) 367 AD
목관편 2(관대 상부)	Beta-496644	나무			-22.5	1,890 ± 30	66 (68.2%) 136 AD
목관편 3(관대 상부)	Beta-496645	나무			-24.9	1,580 ± 30	486 (38.6%) 535 AD
							444 (21.1%) 472 AD
							426 (8.5%) 438 AD
목관편 4(관대 상부)	Beta-496646	나무			-25.5	1,590 ± 30	486 (40.0%) 534 AD
							448 (16.7%) 472 AD
							420 (11.5%) 435 AD

인골 분석 이외에도 목재 유골함과 석실 폐쇄 쇄기 목재편 분석은 1810±80으로 1917년 조선총독부 조사 당시에 사용된 목재 가능성이 높으며, 목관편으로 수습한 4개의 목재편의 수증

은 금송(金松)으로 수령은 400~600년 사이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최근 익산 금마면 서동생가터로 전해지는 곳에서 백제말기의 석축 저온저장고와 대형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단구로 판단되는 토기 호 내부에서 중국 북조(北周)시대의 동전인 오행대포(무제 건덕 3년인 574년 주조)가 출토되었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23). 그렇다면 북제에 사신을 파견한 위덕왕도 대왕릉 피장자의 한 후보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왕릉 출토 옥장신구에 대한 문제이다. 발표자는 唐의 의복제가 高祖(618~626)에 제정된 점을 들어 무왕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다수의 연구자는 발표자가 스치듯 언급한 612년 수(隨)에 조공하였을 때 양제(煬帝)가 상을 후하게 내렸다는 기사를 토대로 당이 아닌 수 양제(재위 604~618)와의 관련성을 들며, 그의 무덤에서 출토된 옥대(김낙중 2021)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의 의복제도는 621년 제정되지만 그 사례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647년이기 때문이다. 당나라가 수나라 공제 양유에게 황제 자리를 선양받아 당나라를 건국한 점을 생각한다면 본격적인 의복제도가 정립되기 이전에 과거 수나라의 예법을 따랐을 가능성에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익산지역에서 당식(唐式)과대가 삼당리 호천유적(6호석실-2점), 미륵사지(서탑 1층-3점, 동원승방지), 왕궁리유적(5호가마터) 등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출토된 점에 주목하여 무왕의 지지기반인 익산세력으로 해석한 연구도 있다(최정범, 2018).

세 번째, 목관의 장식인 금동투금구에 대한 내용이다. 투금구는 부여왕릉원과 익산왕릉원(익산쌍릉)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를 검토하여 일제강점기 정리 과정에서 미미한 점을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이병호, 2017), 이를 토대로 금속기술의 세부기법과 대왕릉과 소왕릉 축조기법의 세부축성을 검토하여 소왕릉이 대왕릉보다 먼저 축조되었을 견해를 밝힌 바 있다(이문형, 2022). 즉, 소왕릉과 대왕릉의 세부 축조기법을 보면 상대적으로 소왕릉이 부여왕릉원의 능묘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즉 대왕릉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봉분 주변 돌레석의 설치, 배수로 시설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표-2>참조.

5. 마지막으로 익산지역(금마)과 무왕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할까 한다. 기록에 의하면 『三國史記』에는 무왕의 탄생과 관련한 간단한 기록이 있는 반면, 『三國遺事』에는 무왕의 탄생과 유년시절, 선화공주를 만나 왕위에 오르는 과정, 그리고 미륵사의 건립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일본에서 『觀世音應驗記』에는 익산으로의 천도 사실과 함께 불탄 제석정사의 신비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익산은 백제사에 있어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과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유적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왕궁리유적, 미륵사지를 위시하여 제석사지, 익산왕릉원(익산쌍릉), 익산토성, 그리고 최근에는 서동생가터로 전해져 오는 곳에서 백제 왕실 관련 건물지와 유물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유적은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연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지난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약 40여 년간의 꾸준한 발굴조사 성과로 익산은 백제의 고도(古都), 백제 왕도(王都)로 그 실체를 어느정도 찾아가고 있다. 백제에 도성에 있어 유일하게 궁장이 설치된 왕궁(왕궁리유적)-왕실과 국가사찰(미륵사-제석사)-왕릉(익산쌍릉)-관방(익산토성)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홀대되었던 『三國遺事』와 『觀世音應驗記』 역시 그 사료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늘 발표자의 글을 읽고 느낀 소회를 발표자의 인용 논지로 마무리할까 한다.

“고고학에서 방사성탄소연대를 역연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고학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방사성탄소연대를 단순히 실연대 자체로써 참고자료가 아니라 고고학적 정황과 조합하면서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가능성의 역연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창희, 2008)의 경청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논지에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참고문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6, 『나주 복암리 고분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익산 쌍릉』.

김낙중, 2021,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이문형, 2012, 「전북지방 백제 황혈식석실분의 수용과 전개」, 『백제고분의 새로운 인식』 2012년 호서·호남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이문형, 2014, 「한성기 백제 황혈식석실묘의 특징과 성격-한강유역의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42.

이문형, 2022, 「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쌍릉 피장자」, 『한국고대사학회』 106집.

이병호, 2017,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의 고적조사와 쌍릉 출토품」, 『백제문화』 56.

최정범, 2018, 「한반도 당식 대장식구의 전개와 의미」, 『한국고고학보』 109.

황효분 著/ 김용성 역, 2006,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표 2] 부여 왕릉원 및 동서고분군과 익산왕릉원(쌍릉) 세부 속성표(이문형, 2022 인용)

(□ 흙)

지역/유구명	평면 형태		단면 형태		천장 유형		축조 석재		관대	현문 구조	현실 폐쇄		연도 위치		연도 폐쇄		배수 시설	호석 (둘레석)	비고
	장방	터널	고임	평	반원	육각	사각	장대석			석재	판석	할석	판석	중앙	편재			
부여	중하총	■			■			■	無	■						?	?		
	동하총	■		■		■		■	■ (진돌·철판석)	■	□	■			■			■	현실 이중폐쇄
	서하총	■		■		■		■	無	■	■	■		■					우측으로 약간 편재
	서상총	■		■		■		■	無	■	□	□	■		■			■(?)	제조사 (21)
	중상총	■		■		■		■	■	■	■	■	■		■				연도폐쇄(진돌형할석)
	동상총	■		■		■		■	■ (2매)	■	■	□	□		■		?	■	
익산	소왕릉	■		■		■		■	■	■	■	■		■			■	■	묘표석 제조사(17)
	대왕릉	■		■		■		■	■	■	■	■		■			■	■	제조사(19)
동고분군	1호분	■		■		■		■	부석	■	□	□		■			■	■	제조사(21)
	2호분	■		■		■		■	부석	■	□	□		■			■	■	
	3호분	■		■		■		■	판석	■	■	■		■ (우)		■ (수매)	■	■	우편재 명확
	4호분	■		■		■		■	생토 (합장)	■	□	□		■ (우)		□	■	■	우편재 명확
	5호분	■		■		■		■	판석 (수매)	■	□	□		■		■ (의식형)			
	6호분	■		■		■		■	판석 (수매)	■	■	■		■ (우)		■	■	■	우편재(약간) 신규(21)
서고분군	4호분	■		■		■		■	판상석(15매) ·활석	■	■	■		■			■	■	제조사(18)
	3호분	■		■		■		■	판석 (3매)	■	■	■		■			■	?	막선 제조사(18)
	2호분	■						■	판석	■	■	■		■			■	■	제조사(16)
	1호분	■						■	판석	■	■	■		■			■	■	제조사(16)

곡성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최연식(동국대학교)



곡성 태안사 구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

최연식(동국대)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적인선사비에 대한 기존의 이해 상황

-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탑비
- 872년(경문왕 12) 건립, 후대에 파손
- 1928년 새롭게 건립 : 신비(新碑)
- 원래의 비문이 두 가지 형태로 전함
무(無)비말(碑末)본 : 『태안사사적』
유(有)비말(碑末)본 : 『금석총람』(←화엄사사본)
- 비말(碑末)의 실재하였는지에 대해 이견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적인선사비에 대한 기존의 이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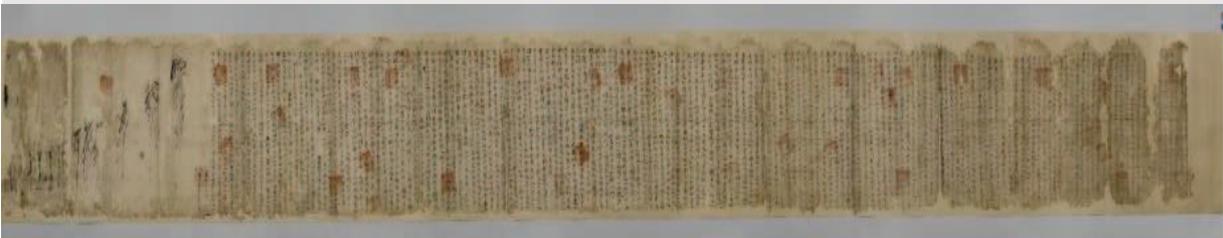
碑末 福田數 法席 時在福田四十 常行神衆法席 本定別法席無
 本傳 食二千九百三十九石四斗二升五合
 例食 布施燈油無
 田畚柴 田畚并四百九十四結三十九負 坐地三結 下院代四結七十二負
 柴一百四十三結
 荳原地 鹽盆四十三結
 奴婢 奴十名 婢十三口

같은 내용이 『태안사사적』에는 〈廣慈時大衆〉으로 수록, 지역별 토지 분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晋州任內永善縣地田畚并九十四結十三ト七束 同任內宜寧土田畚并一百十結二十九ト三束
 靈光任內森溪縣地田畚并十八結七十ト二束 同任內年平縣地田畚并二十九結八十五ト 羅州
 任內餘糧縣地田畚并九十七結十八ト 寶城任內五果縣地田畚并六十一結五十五ト 昇州任內
 富有縣地田畚并二十二結九十八ト八束 陝川任內加祚縣地田畚并六十結三十ト二束 昇平縣
 地 阿今島 小楮島 用老島等 藿田九結九十九ト八束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적인선사비에 대한 기존의 이해 상황

- 비말(碑末)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적인선사비에 수록 : 9세기 신라말의 상황
 광자대사비에 수록 : 10세기 고려초의 상황
 비말(碑末)은 9세기, 〈廣慈時大衆〉은 변화된 상황
- 〈수선사형지안〉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고려 무인집권기(1230년경)에 기록된
 〈대안사형지안〉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地勢, 始創,] 佛像間閣, 幢塔碑, 福田數法席, 本傳, 例食, 田畚柴, 奴婢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발견과 새로운 이해의 등장

- 2020년 신비 옆의 구비 확인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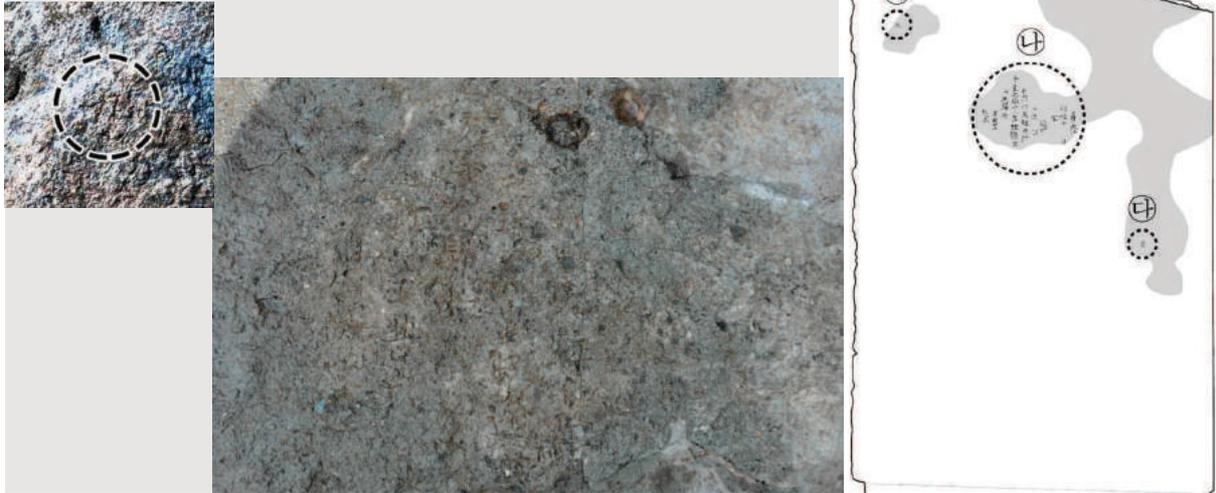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발견과 새로운 이해의 등장

- 구비의 원형(?) [황호균(2021)]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발견과 새로운 이해의 등장

- 2020년 신비 옆의 구비 확인 및 조사 [이일규·남혜민(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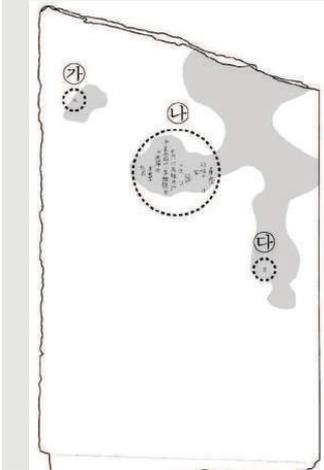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발견과 새로운 이해의 등장

- 구비 명문의 판독 [이일규·남혜민(2020)]

J	I	H	G	F	E	D	C	B	A	J	I	H	G	F	E	D	C	B	A
													(神)						
												(得)	呈	也					
												不	之	其					
												歸	瑞	(回)	(知)				
										生	王	於	(異)	天	之			到	
										減	甚		虫	駐	逃		不	哇	尋
											(嘉)		蛇	日	(禁)	(師)		也	大
													遁	(縮)					(藏)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발견과 새로운 이해의 등장

- 구비의 재구성 : 비밀의 기재 확인 [이일규·남혜민(2020)]



'碑末'(?)	年月	書者	詞	J	I	H	G	F	E	D	C	B	A	本文	撰者	表題				
35~31	30	29	28	27	26	...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	3	2	1
(5개 행 분량의 공간)	咸通十三年歲次壬辰八月十四日立 沙門幸示	中舍人臣 克一奉 教書	唯我大覺今現多身 性本空寂今用日新 ... 斯恩永世兮何萬春	...	其詞曰...	...	生滅 ...	王甚(毒) ...	(得不歸於 ...)	(神早之錫異虫蛇遁其 ...)	也其回天駐日(縮 ...)	(知之(禁) ...)	逃(師) ...	不 ...	到(旺)也(日) ...	尋(大)藏	夫鍾也	武州桐裏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并序 入唐謝因兼宿衛判官翰林郎臣崔贊奉教撰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구비의 글씨는 세로줄은 맞지만 가로줄은 맞지 않음
한 행의 글자 수도 서로 다름 [이일규·남혜민(2020)]
→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고승비에서 볼 수 없는 모습

J	I	H	G	F	E	D	C	B	A
74	74	75	74	75	69	70	71	72	
生	王	於	虫	天	之	逃	不	旺	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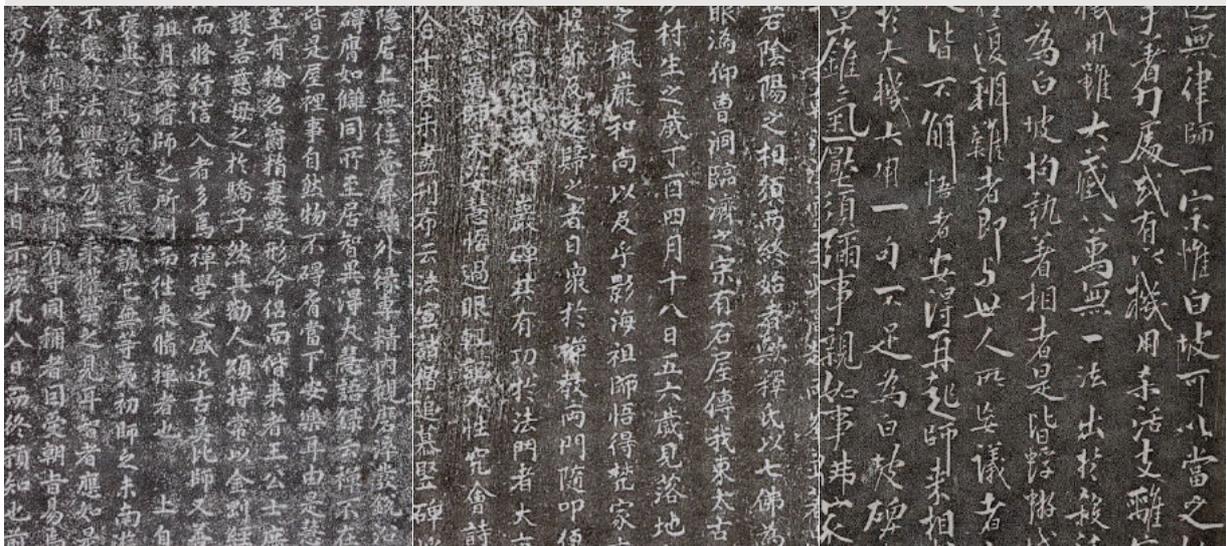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의 고승비는 정간(井間)을 사용
→ 세로와 가로로 줄이 정연함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조선시대의 고승비는 세로 줄만 사용하여 가로는 정연하지 않음
때로는 한 행의 글자 수에 차이가 나기도 함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구비의 이수에는 정면에 보주를 희룡하는 두 마리의 용이 보이지 않고 대신 새(가릉빈가로 추정)가 조각되어 있음
→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고승비 이수에서 볼 수 없는 모습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고승비의 이수들
→ 모두 정면에 두 마리의 용이 보주를 희룡하고 있는 모습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구비의 이수가 원래의 것이 아니라 다른 비의 이수를 활용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비의 규격으로 볼 때 구비 본래의 이수로 여겨짐 [황호균(2021)]
- 이수와 귀부 또한 조각 모습으로 볼 때 본래의 짝으로 여겨짐
구비의 비축(하단) 너비 103cm, 높이 15cm, 두께 14~18cm
구비 이수의 홈 너비 106.5cm, 두께 18.5cm
구비 귀부의 홈 너비 103cm(혹은 105cm), 두께 20.5cm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구비는 비문의 기록 형태, 이수과 귀부의 형태 등으로 볼 때 9세기 후반에 건립된 원래의 비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다시 건립된 것으로 여겨짐
- 실제로 현재의 신비 건립 이전에 조선시대에 적인선사비를 중건했다는 기록이 보임

“距今一千〇六十七年前 新羅景文王元年辛巳二月六日 惠哲國師께서 入寂하셨는대 同八年戊子六月에 王이 旨를 降하사 諡號를 寂忍이라 塔號를 照輪淸淨이라 하섯스며 距今九百八十四年前 高麗惠宗王二年乙巳二月二日 廣慈大師가 入寂하셨스며 前記 景文王十二年壬辰八月十四日 中舍人臣克一이 教를 奉하야 國師의 碑碣을 樹하고 麗朝에서도 廣慈大師의 碑를 立하엿는대 李朝宣廟壬辰亂을 際하야 近村에 散在한 寺奴輩가 自己네의 缺點이 碑面에 完全한즉 寺院의 羈絆은 永遠히 解脫할 수 업다 하고 그만 碑를 擊碎하야 地中에 埋沒하엿슴으로 **특히 惠哲國師의 碑를 再樹하엿다가 今年에 至하야 二千餘圓의 巨額을 드려 三回 再 樹立云**이다”(晚悟生, 「泰安寺에서: 色塵聲塵의 其四」, 『佛敎』 57, 1929)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후대의 전승에는 임진왜란 때에 원래의 비가 훼손되었다고 이야기됨
- 그런데 17세기 전반 태안사를 방문한 인물은 적인선사의 비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題桐裏山太安寺>

[谷城南有廢縣舊武州。神僧惠哲。天寶元年。自中原出來。剎開此寺。寺在谷城南六十里。翰林崔賀撰其碑。至今宛然]

武州何代縣。桐裏此山根。細路穿雲入。寒鍾隔水聞。
明明天寶事。琬琰翰林文。撫古仍多感。懸燈坐夜分。

[황위(黃暉, 1605-1654) 『塘村集』卷之一]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1702년에 지은 글에서는 비석이 훼손되어 땅에 묻혀 있고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泰安寺鳳瑞庵新建募緣文>

泰安寺者。羅朝慧徹國師之所創也。多歷年所。屢經兵火。翬飛鳥革之構。倏爲灰燼。狐兔戲走之場。不記星霜。國老之龜碑鴈塔。字沒而伏地。苔封而指天而已。厥後方袍之徒。深慨古人之遺蹤。久埋榛莽之中。僅構若干殿堂。而流至于今。洞邃世遠。居僧甚少。其彫弊之狀。不忍齒錄。(중략) 因循至今。實可歎也。故我一壞衲。發大願王。擬作興復之舉。事大力微。政如愚老移山。精衛填海。雖是不量力之一事。而不生怖畏者。正以知因識果。懺罪者。捨此奚爲。少少非厭。多多益善。仰祝王碁鞏固。聖壽悠久。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 『無用堂集』下]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비슷한 시기 다른 글들에서도 비석이 훼손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泰安寺懷古> [寺是惠徹國師所創]

南極千年國一園。淡烟疎樹遠相分。樓臺基砌何人識。鐘梵風流祇自聞。
龜背斷碑苔蝕字。鶴邊遙岫月磨雲。不須懷古傷前事。依舊青山脫俗紛。
[설암추봉雪巖秋鵬(1651~1706) 『雪巖禪師亂藁』 卷之第二]

<題泰安寺>

淡雲堆裏數峯青。中有樓臺日月明。嶽送孱顏當檻列。溪將廣舌隔林鳴。
煙籠翠竹層崖直。苔蝕荒碑古路橫。寂寞禪窓清不寐。隨風疎雨灑寒更。
[영해약탄(影海若坦, 1667~1754) 『影海大師詩集抄』 卷單]

- 18세기 이후 비석중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17세기 전반에 서있던 비는 새로 확인된 구비
→ 구비는 17세기 이전에 건립되었다가 18세기에는 훼손된 것으로 보임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 검토

- 19세기 중엽에 적인선사 부도전을 새로 수축하였다는 기록
- 내용상 비석이 아닌 부도와 부도전을 수축한 것으로 보임

<逐虻峙說>

“谷城桐裏山泰安寺。慧徹國老道場也。諺傳創寺之時。一洞皆是蚊虻聚集之所也。國師以神力逐之。飛躅於山之右嶺。因爲建寺。厥後無一介蚊子。故名其嶺曰逐虻峙。又國師之碑及浮屠。在於寺內。世爲嚴守矣。至咸豐甲寅乙卯之間。墻垣崩落。未及修築。遷延月日矣。其年夏。無限蚊子。千陳萬隊。滿谷成雷。鼻眼莫開。於是大衆。同心宣力。亟爲修築浮屠道場。即行告祝國師神堂。蚊虻即時屏跡。僧人安堵如故。亦異哉。”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 『梵海禪師文集』 第一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성격 검토

- 구비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음

구비편 조사 결과 『총람』(화엄사소장 사본 전재)과 같이 <적인선사비>와 <비말>로 구성되었을 가능성 높음 [이일규·남혜민(2020)]

하지만 화엄사소장 사본이 구비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는 알 수 없음

- 구비를 직접 본 황위의 시 <題桐裏山太安寺>에서 천보(天寶, 742-755) 연간의 일을 언급

[谷城南有廢縣舊武州。神僧惠哲。天寶元年。自中原出來。搆開此寺。寺在谷城南六十里。翰林崔賀撰其碑。至今宛然]

武州何代縣。桐裏此山根。細路穿雲入。寒鍾隔水聞。

分明天寶事。琬琰翰林文。撫古仍多感。懸燈坐夜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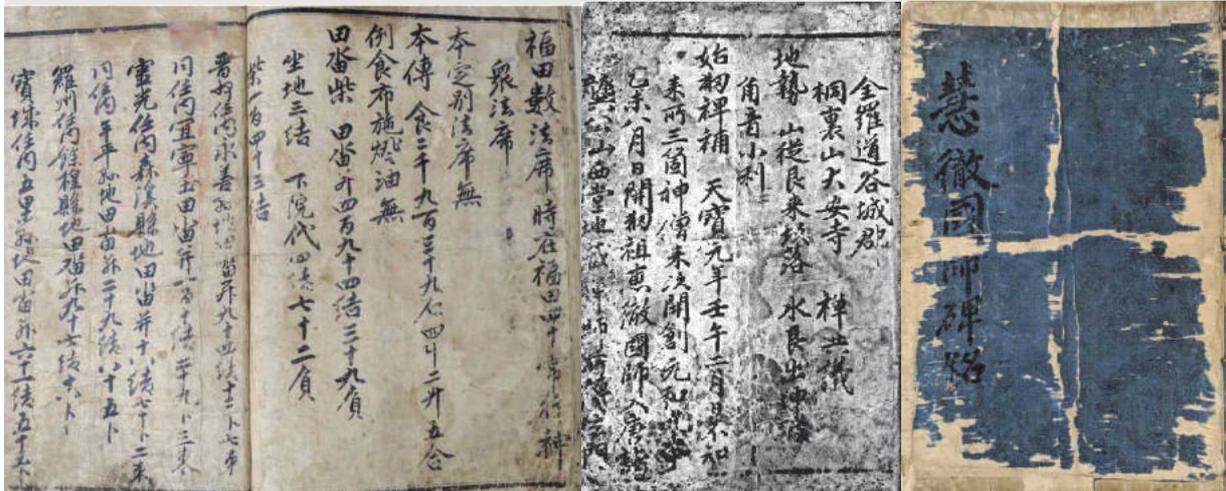
→ 구비에 천보년간의 일이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성격 검토

- 태안사소장 『혜철국사비명』에도 천보년간의 일을 언급 [이일규(2023)]

始創禪補 天寶元年壬午二月日不知來所三箇神僧來次開創 元和十年乙未八月日開創祖惠徹國師入唐詣龔公山西堂地藏禪師所傳法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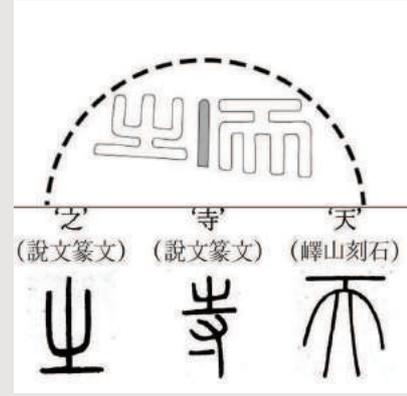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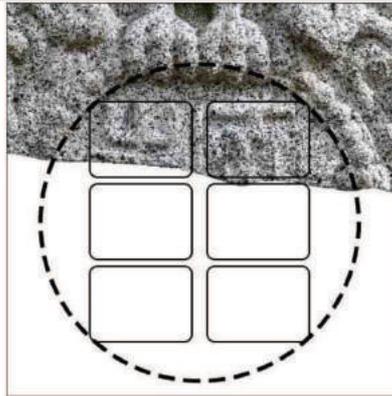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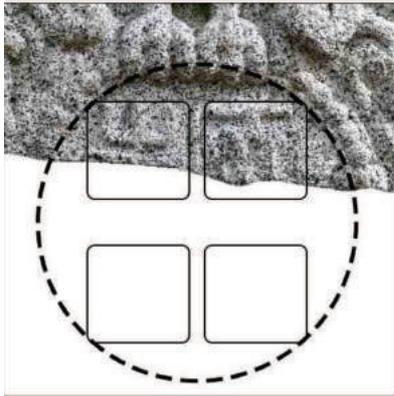
地勢 - 始搆 - 碑文 - 福田數法席 - 本傳食 - 田畝柴 - 奴碑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성격 검토

- 구비에서 비문의 앞 혹은 뒤에 태안사의 천보(天寶, 742-755)연간 시창을 언급하였고, 이것을 본 황위가 <題桐裏山太安寺>에서 천보사(天寶事)를 언급하였을 가능성 높음
- 구비 이수의 제액도 천보(天寶)와 관련될 가능성 있음
'天.../寺...' [최남선] '天□之[碑]' [이일규·남혜민(2020)]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성격 검토

- 구비, 화엄사소장 사본, 태안사소장 『해철국사비명』 등은 비슷한 성격 廣略의 차이는 있지만 적인선사비와 함께 사찰의 현황을 기록 <태안사사적>도 비슷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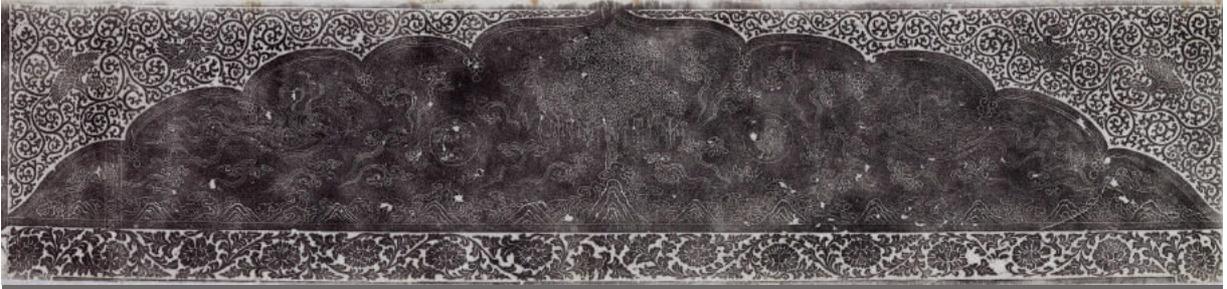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舊 적인선사비의 성격 검토

- 구비, 화엄사소장 사본, 태안사소장 『혜철국사비명』 등은 <태안사사적>과 마찬가지로 사찰에 전해지던 <대안사형지안>에 의거한 것으로 보임
- 『혜철국사비명』의 내용(地勢 - 始勅 - 碑文 - 福田數法席 - 本傳食 - 田畚柴 - 奴婢)은 고려시대 사찰형지안(<대안사형지안>)의 구성과 일치함
- 17세기 이전 시기에 <대안사형지기>의 내용 중 개창조 적인선사[혜철]의 비문과 사찰의 역사와 현황을 발췌하고 이를 『(혜철)국사비명』 등으로 명명한 자료들이 편찬되었고, 구비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됨

태안사 舊 적인선사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참고문헌>

- 최연식(2013) 「고려 사원형지안의 복원과 선종사원의 공간구성 검토」, 『불교연구』38
- 이일규·남혜민(2020), 「태안사 적인선사비의 이수와 비말(碑末)에 관하여」, 『역사와 현실』117
- 황호균(2021),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비·광자대사탑비의 연구」, 『불교문화재연구』2
- 이일규(2023), 「태안사 적인선사비의 계통과 비문 교정」, 『목간과 문자』30



감사합니다

선각대사비문에 보이는 왕건과 궁예 - 판독 교정에 바탕한 새 사실 유추 -

하일식(연세대학교)

선각대사비문에 보이는 왕건과 궁예

- 판독 교정에 바탕한 새 사실 유추 -

하일식(연세대학교)

목차

- | | |
|-------------------|-------------------|
| 1. 판독 교정, 분석 계기 | 4. 왕건 즉위 후 추념 지시 |
| 2. 새 판독으로 알게 된 것들 | 5. 선각대사와 왕건, 궁예 |
| 3. 선각대사와 최연위 | 6. 역사와 인간을 다시 생각함 |

1. 판독 교정, 분석 계기

선각대사는 왕건이 나주에서 일시 철군할 때 무위사에서 태봉으로 모셔왔고, 몇 년 뒤에 궁예에게 처형당한 승려.

오랫동안 비문 속 ‘大王’을 막연히 왕건이라 생각(한두 구절만 갖고 이용). 2011년 본격 연구가 나옴 : “‘大王’은 수군을 이끌고 나주 공략한 주체인 궁예, 궁예가 여러 禪師를 포용, 고려 초만 해도 궁예를 大王이라 일컬을 정도로 인식이 나쁘지 않았던 것.”

의문이 있었으나 판독·분석하지 못했고, 우연히 직접 살펴볼 계기가 주어짐.

불교중앙박물관 의뢰로 수철화상비와 선각대사비의 내용을 2023년 11월 발표. 흥선스님 탁본 사진을 건네받고, 무위사를 몇 번 찾아 실물 관찰, 촬영.

塙외의 ‘판독’이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비문의 내용을 다시 짚어봄.

→ 궁예와 왕건이란 인물, 선각대사의 ‘罪名’을 포함한 당시 역사적 상황을 다시 짚어볼 것을 제안하려는 것.

* 새로 판독한 글자들의 대표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비문의 내용을 분석, 편한 순서로 이야기하며 필요한 이미지를 제시.

2. 새 판독으로 알게 된 것들

흥선스님 탁본은 정교하게 작업한 탁월한 결과물. 탁본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글자를 확인·교정 → 당연히 내용 파악과 해석에 영향을 미침.

내용과 해석에 관련된 중요한 판독은 뒤에서 거론하고, 여기서 먼저 몇 사례와 이미지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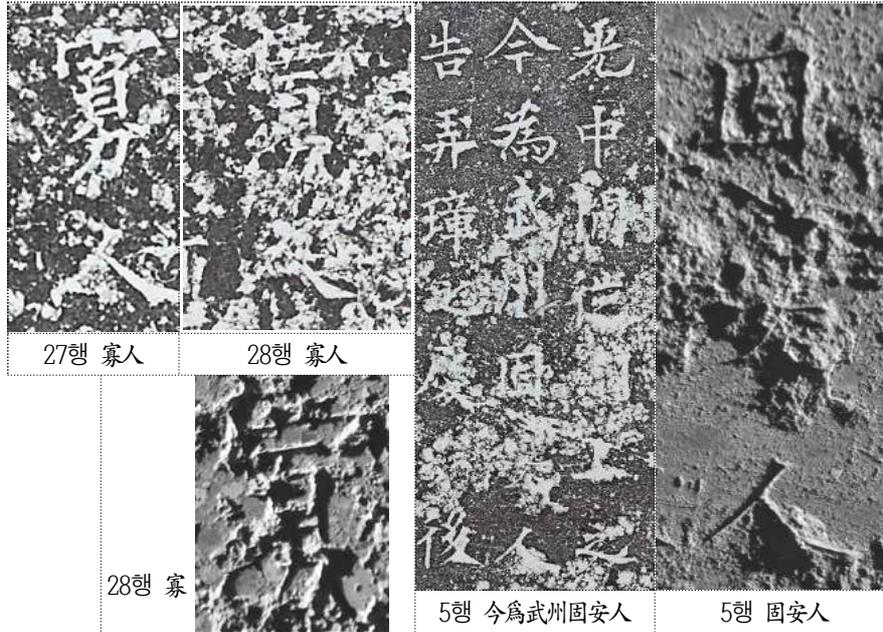
비문 후반부, 왕건 즉위 후 대사를 ‘追念’토록 지시한 구절. 기존 판독의 대부분은 俾修를 읽고, 일부 ‘七七’을 읽었으나 대부분 제대로 번역되지 못함. ‘칠칠’은 49재. 대사가 처형당한 뒤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려줌.

추념 지시 때 언급된 “開州之五冠山 □□之藏胎處”(28행). 이전에는 缺字 처리하거나, □□를 ‘真人’으로 판독하기도 함. 이번 탁본에서 □□가 ‘寡人’으로 뚜렷이 식별. 왕건의 태를 묻은 곳이 개성 오관산임을 알게



俾修七七

됨. 상류층이 태를 묻는 풍습은 김유신의 경우가 첫 사례(『삼국사기』). 이후 이 비문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



또 지금까지는 선각대사 출신지를 ‘武州 固□人’으로 판독, 구체적 지역을 알 수 없었음. 새 탁본과 비석 조사·촬영을 통해 ‘固安人’을 확인.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固[一作同]安縣”이라고 하여 판각 이전 필사 과정에 혼란이 있음도 알려주지만, 선각대사비문을 통해 固安縣으로 확정 - 현재 해남군 마산면 일대.

아버지가 중국인으로 사신으로 왔다가 정착했다고 했으나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듯. 이외에도 제법 많은 글자들을 교정되지만, 뒤에 관련 내용과 함께 제시함.

3. 선각대사와 최언위

선각대사(864~917)는 寶林寺 體澄에게 배우고 화엄사 官壇에서 受戒, 891년(28세)에 중국 유학. 雲居 道膺禪師 밑에서 수행, 905년(42세) 귀국. 8년간 무위사에 머뭇. 913년(?) 왕건을 따라 태봉으로 감. 4~5년 뒤인 917년 궁예에게 처형당함.

최언위는 최치원의 사촌동생. 885년 당에 유학, 과거 급제. 909년 귀국. 935년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할 때 개성으로 옮겨 활동. 오관산이 있는 女羅縣制置使¹⁾을 거쳐 중앙정부의 文翰職을 맡아 존중받으며 활동, 944년 77세로 죽음(아들 崔光胤).

고려에서 활동한 기간은 10년이 채 안됨. 10개 안팎의 禪師 비문을 도맡아 찬술. 해당 선사 연도별 행적은 門下僧이 작성한 行狀에 의존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들과 문답, 또는 당시 기억을 갖고 있는 고려 官人에게 질의하는 과정을 거쳤을 듯.²⁾ 다만 대사의 행

1) 「了悟和尚碑」(태조 20, 937)의 失名 女羅縣制置使를 元甫 官階 및 官銜으로 최언위로 추정.

2) 그러나 면밀한 파악을 위해 폭넓은 자문을 통해 파악했는지 회의적.

적과 연관된 단기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의구심이 있음(「징효대사비」, 「선각대사비」, 오룡사 「법경대사비」 등).

4. 왕건 즉위 후 추념 지시

비문의 말미에 왕건이 선각대사를 追念토록 지시하는 내용이 나옴.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섞어서 사용한 문장.

A-1 當 [66자 남기고 행 바꿈] 今上居尊之際 謂群臣曰 “竊惟故[]大師 道高十地 德冠[]遠出 []方 來儀樂土 寡人 早披鑽仰 恭表歸依 顧思有得之緣 常切亡師之痛” 仍於雨泣 實慟淚 [] 追 [] [] 俾修七七」 (중략)

A-2 下臣 謬因宦學 叨典[]機 辭潤色於仙才 謝知言於哲匠 先是 壬宮 []賦 金榜題名 何期 降 [] [] [] 紫泥於華門 銘黃絹於蓮宇 所冀強搖柔翰 申 [행 바꿈] 大君崇法之由 聊著鮮文 慰門下送終之懇

a-1 今上이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된 때를 맞아 여러 신하들에게 말씀하셨다. “가만히 생각하면, 돌아가신 대사는 道가 十地보다 높고 德은 여러 …를 앞서니 멀리 …에서 나와 樂土에 거둥하셨다. 과인은 일찍이 우러러 받들며 공손히 귀의함을 표했다. 얻은 인연을 돌이켜 생각하면 늘 대사를 잃은 아픔이 간절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시며 진실로 애통해 하셨다. … 49재를 지내라고 시키셨다. (중략)

a-2 下臣(최언위)은 잘못되게 학문하는 벼슬을 하게 되어 외람되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꾸미는 일은 신선같은 재주를 지닌 이에게 사양하고, 말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에게 미루었습니다. … 앞서 과거에 급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누추한 집에 임금의 명령서가 내려와서 훌륭한 문장을 사찰에 새길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억지로 붓을 움직이며 바라보는 바는, 大君이 불법을 숭상한 연유를 드러내고 어렵사리 깔끔한 문장을 지어 문하 제자들이 (스승의) 마지막을 보내는 간절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첫머리의 今上은 당연히 왕건임. 중간에 2번의 寡人은 직접화법으로 읊긴 왕건의 발언인 만큼, 당연히 왕건이 스스로를 칭한 표현. 또 제일 마지막의 大君은 ‘큰 임금’이란 뜻으로, 최언위가 지은 정토사 「법경대사비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옴.

5. 선각대사와 왕건, 궁예

1) 왕건과 선각대사의 만남

비문은 선각대사의 출생과 출가, 중국 유학을 서술. 그리고 905년(효공왕 9) 武州 會津으로 귀국. 이후 武州의 知州蘓荊 王池本이 대사를 후원하며 무위사에 머물게 하며 여러 모로 지원, 절을 크게 일으켜 8년을 보냈다고 서술.

3) 書者는 비문에서 나무목변(木)을 손수변(扌)으로 썼음. 於를 모두 於로 쓴 것이 대표적. 그래서 樞 자는 樞로 해석함이 나올 듯. 고려시대 국정의 중요 업무를 표현한 것이 樞機.

이어 최언위는 왕건과 대사의 만남을 서술하기 전에 당시 시대상황을 짧게 서술했음.

時圖□□危踰於桀紂之年 乱甚於劉曹之代 上無聖主 猶鋪謂聚之徒 下有□流 莫□鯨□之難 物□□□□如□」四海沸騰 三韓騷擾

당시는 ...에 속하여 위태로움은 桀紂 시절보다 더하고, 어지러움은 유비·조조의 시대보다 심했다. 위로는 聖主가 없이 고슴도치 무리가 깔린 것같고, 아래로는 고래들 ... 어러움 ... 사해가 비등하고 삼한이 떠들썩하게 어지러웠다.

최언위는 당시 위태로움이 桀紂 시절보다 더하고 했음. 桀紂는 궁예에 빗댄 것이 분명.⁴⁾ 이후 왕건이 선각대사를 만나는 장면이 서술됨.

至九年八月中 前主 永平北寇 □擬□□ □□發舳舻 親駟車駕 此時 羅州歸命 屯軍於浦嶼之旁 武府逆鱗 動衆於郊畿之□□□□

時 [7자 남기고 행 바꿈] 大王聞 前主 近從吳越 新到秦韓 匿摩尼於海隅 藏美□於天表 所以先飛 前主 丹詔 遽屈道竿 前主 捧制奔波 趨風猛浪 親窺虎翼 暗縮龍頤 僧□□□ 吳王轉明之下□□」無以加也 其後 班師之際 特請同歸 信宿之間 臻于北岸 遂於舍那禪院 請拂行塵 供給之資 出於內庫

(천우) 9년(912) 8월에 前主가 북쪽 도적들을 완전히 평정하고 ... 수군을 발동하니 친히 군대를 이끌었다. 이때 羅州는 항복하여 섬들 사이에 병력을 머물렀는데, 武府는 저항하며 주변에서 무리를 움직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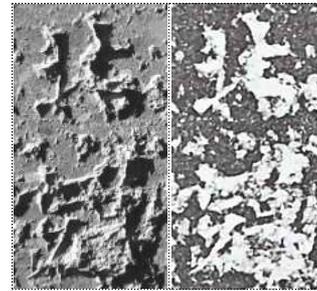
이때 大王께서 대사가 근래에 吳越에서 秦漢에 새로 도착하여 바닷가에서 摩尼를 숨기고 美□를 아득한 곳에 감추고 있음을 들으셨다. 이에 먼저 丹詔를 짚에 보내 몸을 굽히시니, 대사가 劄를 받들어 물살을 헤치고 사나운 풍랑을 거쳐 달려갔다. 용맹스런 군대의 위엄을 엿보고 가만히 고개를 숙여 ... 하니, 康僧會가 吳王을 밝혀준 것에 ... 더할 바가 없었다.

그 후에 군사를 돌이킬 때 특별히 함께 돌아가기를 청하니 이틀 밤을 지나 北岸에 이르렀다. 이윽고 舍那禪院에서 가는 길의 먼지를 떨 것을 청하고, 필요한 비용의 공급은 內庫에서 댔다.

첫머리의 前主는 궁예임. 永平北寇의 寇는 기존에 판독하지 못한 글자인데, 그림의 탁본과 사진에서 선명히 확인 가능. 이는 905년 궁예가 溟西 13鎮을 정하고 그 방면의 지방세력이 귀부한 사실⁵⁾을 뜻함. 최언위는 이를 912년 왕건의 서남해안 공약으로 서술하



桀紂



19행 北寇



北魏 中岳崇靈廟碑

4) 최언위는 다른 禪師碑에서도 견훤을 거의 언급하지 않음. 사정을 몰랐으며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

5) 『삼국사기』 권50, 열전 궁예.

고, 나주를 공략한 것도 이때처럼 서술했음 - 몽똥거리 시간 압축 +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제대로 끊어서 이해하지 못함(?).

왕건의 나주 공략은 903년이 처음. 이후 여러 차례 왕래하며 관리함. 선각대사와 첫 만남을 “섬들 사이에 병력을 머물렀”(屯軍於浦嶼之旁)던 때로 서술했는데, 이는 909년이었을 가능성이 큼. 함대를 이끌고 鹽海縣(신안군 임자도), 皐夷島(신안군 압해읍 고이도)에 머문 것이 이 무렵. 대사가 왕건의 글을 받고 “물살을 헤치고 사나운 풍랑을 거쳐 달려갔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 이때 만남에서 대사가 “親窺虎翼 暗縮龍頤”했다는 구절에서 기존 판독 대부분이 ‘頤(頤)’를 □ 또는 頤로 처리. 왕건 함대의 軍勢를 보고 턱을 당겼다, 고개를 숙였다는 뜻.



20행 暗縮龍頤

왕건은 철군하며 선각대사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 대사는 응함.6) 2박 3일만에 도착 - 대사를 수행한 문하승이 있어서 행장에 기록한 것.

여기서 ‘大王’, ‘親駟車駕’, ‘丹詔’, ‘制’, ‘郊畿’, ‘內庫’는 모두 왕건에 해당. 태조의 명으로 비문을 찬술하는 최언위의 視點에 입각, 현 국왕인 왕건의 과거 활동도 時點을 소급하여 국왕에 걸맞는 표현을 쓴 것.

2) 궁예의 신문 장면

불완전한 판독에 바탕하여 기존에 매우 혼란스럽게 해석된 부분이 궁예가 선각대사를 訊問하는 장면. 아래 내용.

所恨群魔難伏 衆病莫除 雖奉法以栖眞 迺憑□□□□□ 今□禍者 遍如□□」 狂殺無辜 而乃遭艱者 填甚雲屯 同歸有罪 然則澄公道德 敢俊胡石之兇 慧始仁慈 寧止赫連之暴 况又永言移國 唯唱喫人 可謂 多疑 匪生不信

以十□□□□□日 [6글자 남기고 행 바꿈]」 大王 驟飛鳳筆 令赴龍庭 冀聞絕跡之譚 猶認無言之理 卍卍大師狼忙入內 卍卍主上鶻立當軒 難測端倪 失於舉措 豈思就日玄高之獲□ 昏君無奈 瞻□□□□ 遭僞代是 □□」 業對將至 因緣靡逃 兼被崔皓懷軒 寇謙□□

卍卍大王謂 卍卍大師曰 吾師 人間7)慈父 世上導師 何有存非 不無彼此 卍卍大師 方知禍急 岡避危期 □曰 □□困德□ 嬰莒僕之謀 □」 者 懷恩 寧厠商臣之惡 然而壹言不納 遷戮仍加

捨命之時 □□□ 致俗年五十有四 僧臘三十有五 于時 川池忽竭 日月無光 道俗吞聲 人天變色 豈

6) 오릉사 범경대사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나옴.

7) 이 비문에는 間을 間으로 쓴 경우가 많다. 21행 ‘信宿之間’이 그렇다.

謂秦原亦□□□□ 卽世之□□ 漢室龍興⁸⁾

한스러운 바는 마귀 무리를 굴복시키기 어렵고 많은 질병을 제거하기 어려움이라. 불법을 받들어 참됨에 깃든다지만 …를 핑계로 …지금 禍를 입는 것이 …처럼 두루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니, 이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구름 모이듯 짙 차서 함께 有罪로 몰렸다. 그러니 佛圖澄의 도덕으로 감히 오랑캐 石氏의 흉악함을 고치고, 慧始의 인자함으로 赫連勃勃의 흉포함을 정녕 그치겠는가. 하물며 또 완전히 나라를 옮겼다고 말했지만 오직 사람을 삼킬 듯 고함칠 뿐이었다. 의심이 많은 것이 또한 불신을 낳는다고 할 만했다. …

1(4년)⁹⁾… 하는 날, 大王(왕건)이 鳳箏을 날려 궁궐에 보내어 자취를 끊은 이야기를 올렸으나 아무 말도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었다. 대사가 황망히 궁궐에 들어가니 主上이 전각 마루에 부엉이처럼 우뚝 서 있었고,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워 어쩔 줄을 몰랐다. 玄高가 붙잡혀 죽임을 당한 날을 생각조차 하였겠으나 昏君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 (취조를) 마치니 거짓을 맞닥뜨려 바른 것을 대체한 것이었다. … 장차 業을 마주함에 이르러, 달아나려 하지만 인연이 쫓아움을 당하여 崔皓의 간사함과 寇謙之의 …

大王(왕건)께서 대사에게 “우리 스님은 사회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세상을 이끄는 스승이니 어찌 生死가 있을까마는 彼岸과 此岸은 있겠지요”라고 말씀하셨다. 대사는 화가 급히 닦친 것을 바야흐로 알았지만 위태로운 때를 피하지 않았다. … (대사가) 말하길 “… 僞僕의 음모를 목에 걸칠 것이며, 은혜를 품고서 어찌 商臣의 악행에 섞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끌고가 심하게 도륙했다.

목숨을 버릴 때 세속 나이로 54살, 승랍으로 35년이였다. 이때 내와 못이 갑자기 마르고 해와 달이 빛을 잃었으며 승려와 속인이 울음을 삼키고 사람과 하늘의 색깔이 바뀌었다. 어찌 秦나라도 원래 … 죽고 漢 왕실이 흥했다고 말하겠는가.

이 부분이 난해한 이유는, 비문 찬술자가 시간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하지 못한 탓이 있을 듯.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釋問答 또는 불교식 言說로 이해하지 않고 궁예의 신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면 선명해짐.

내가 이해한 맥락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궁예가 선각대사에게 혐의를 씌워 소환.

첫 번째 혐의는 “후백제와 내통한다”는 것? 대사는 ‘영구히 나라를 옮겼다(永言移國)’고 항변했으나 궁예는 고함을 지를 뿐. 왕건도 궁궐에 급히 글을 보내 ‘자취를 끊은 이야기(絶跡之譚)’를 올림. 그러나 “아무 말도 없었던 것처럼 간주(猶認無言之理)”됨.

두 번째 혐의는 대사가 왕자와 결탁하여 궁예를 내쫓으려 한다는 것.

처형이 실행되기 직전에 왕건이 대사를 면회하며 나눈 대화 가운데, 대사가 한 말. “… 僞僕의 음모를 목에 걸칠 것이며, 은혜를 품고서 어찌 商臣의 악행에 섞이겠습니까?” 거복과 상신은 모두 태자였다가 아버지를 죽인 인물.

그러나 아무리 변론해도 “昏君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즉 궁예가 昏君이어서 그 모든 변론이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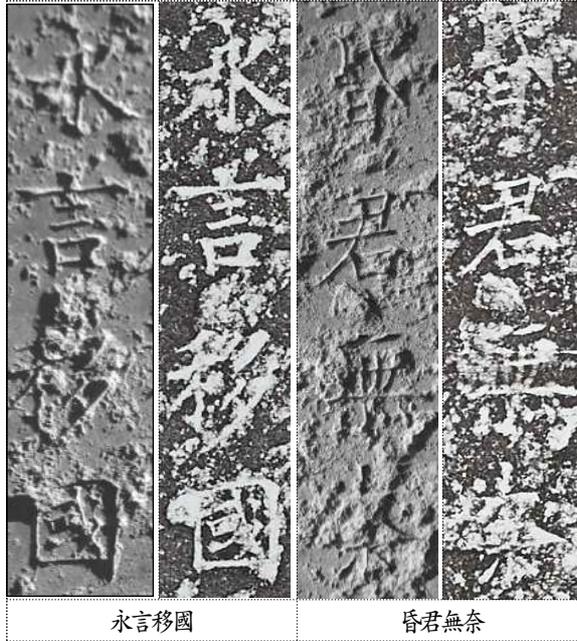
8) ‘漢室龍興’이란 표현은 최연위 찬으로 추정되는 오룡사 法鏡大師碑에도 보인다.

9) 비문에서 분명히 판독되는 것은 ‘十’ 자인데, 형미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따져서 죽임을 당한 연도를 天祐 14년(917)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선각대사에게 덧씌운 혐의는 ① 후백제와 내통한다, ② 왕자와 결탁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이 텍스트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여기서 왕건을 大王, 왕건이 궁예의 궁궐에 보낸 글을 鳳筆이라 한 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소급한 표현.

태봉 궁궐을 ‘龍庭’, 궁예를 ‘主上’이라 한 것은 문하승이 작성한 行狀을 그대로 옮겨온 부분(일종의 “직접화법”처럼). 특히 ‘主上’은 행장 속 표현을 찬술자가



가 미처 바꾸지 못하고 옮긴 결과 → 거꾸로 보자면, 최언위에게 건네진 행장은 대사 처형 직후, 궁예가 축출되기 이전에 바로 작성된 것. 행장을 작성한 사람은 대사가 무위사를 떠날 때부터 수행하여, 궁예의 신문을 받는 장소에서 가까이 지켜보았고, 왕건과 대사의 최후 대화를 들은 사람임.¹⁰⁾

비문에서 大師 등이 나오면 2글자 여백을 둠. 大師 이외에 글자 여백을 두거나 행 바꿈을 한 곳은 아래 표와 같음.

행 바꿈	13행 入朝使	20행 大王聞	23행 大王
	26행 漢室龍興	27행 今上	30행 先覺大師
	31행 紫泥	32행 大君	
앞 2글자 여백	19행 前主(궁예)	23행 主上(궁예)	24행 大王

행을 바꾼 것은 극존중의 표현이고, 2글자 여백을 둔 것은 그보다 아래의 존중 표현. 19행 ‘前主’는 최언위가 궁예를 지칭한 것, 23행의 ‘主上’은 문하승의 행장에 있는 표현을 최언위가 미처 바꾸지 못한 것. 이런 실수는 24행의 ‘大王’을 행 바꿈하지 않고 2글자 여백만 둔 것에서도 확인. 대사의 유년시절을 서술한 6행의 幼無雜交를 ‘幻無雜交’로 새긴 곳도 실수임.

→ 大王은 궁예를 지칭한 것일 수 없음. 그랬다면 찬술자가 ‘반역’ 행위를 한 셈.

3) 오룡사 「법경대사비문」의 先王, 今上

선각대사비의 大王·今上和 관련, 오룡사 「법경대사비」의 先王과 今上이 비슷한 혼란을

10) 왕건이 변론서를 보낸 사실, 왕건과 대사의 최후 대화 등은 행장에 들어 있던 내용인지, 아니면 비문 찬술과정에서 문하승과 問答을 통해 얻은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일으키는 경우임. 이 비문도 문맥을 매끄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 특히 다음 구절이 문제.

先王直從北發 專事南征 徇地之行 逃天者少 特差華介 先詣禪扃 奉傳詔書 赴軍壁也 大師欵
 聆帝命 寧滯王程 及其方到柳營 便邀蘭殿留連 再三付囑重疊 寡人遽迴龍旆 祇俯鳳儀 大師難越
 乘輿 續起□□ … (중략) … 此時共恨獨夫 潛思明主 … (후략)

先왕이 곧장 북쪽을 떠나 南征에 전념하니 가는 길에 거역하는 자는 많지 않았다. 잘 차린 사람을 특별히 사찰에 보내 조서를 받들어 전하여 軍營에 오게 하였다. 대사가 갑자기 帝命을 접하고 어찌 왕의 일정을 지체시키랴 하고서는 곧 柳營에 당도하니, 곧 蘭殿으로 맞아 계속 머물게 하며 거듭 부탁하되 “과인이 군사를 돌이키며 삼가 鳳儀(대사)를 받들려 합니다”고 했다. 대사는 따라가기가 어려워 … (중략) … 당시 모두 獨夫임을 한탄하고 몰래 明主를 생각하며 … (후략)

今上西鍾定議 北極居尊 懸聖日於桑津 掃妖氛於棗海 忽聞大師久窺慧日 曾聽玄風 巨浪乘盃
 今上이 西鍾定議하여 북쪽에서 南面하는 존귀한 지위에 계시니 성스런 해를 이 땅에 매달고 요망한 기운을 동해에 쓸어버렸다. 문득 대사가 오래 慧日을 엿보아 일찍이 玄風을 듣고자 작은 배로 풍랑을 헤치고 중국에 가서 道를 배웠다는 말을 들었다. 上께서는 곧 수레를 타고 … 詔하기를 … (후략)¹¹⁾

뒷구절부터 먼저 살펴보면, 西鍾定議는 후한의 환관 孫程이 중심이 된 18인이 德陽殿 西鍾 아래서 결의하여¹²⁾ 順帝를 옹립한 政變에서 가져온 표현임. 따라서 이 단락의 今上은 당연히 왕건임. 그러면 앞 구절의 先王은 자연스레 궁예라고 생각하기 쉬움. 선각대사비의 大王을 궁예로 파악한다면 더욱 그럴 듯.

다만, 여기서 인용 생략한 비문의 今上 앞 부분에서는 궁예 말년의 난맥상을 언급하고 ‘독부(獨夫)’=天命을 상실한匹夫란 표현을 썼음. 또 獨夫 바로 뒤에는 ‘漢室龍興’을 언급하며 왕건의 즉위를 시사한 문장이 이어짐.¹³⁾ 또 그 앞의 문장은 글자 걸락이 많지만 ‘神器將傾 國綱始墜’에 이어 ‘君臣’·‘父子’란 글자가 있음. 선각대사비의 내용과 상통하는 묘사가 아니까? 상상함.¹⁴⁾

그런데도 이를 先王이라고 칭한다? 매우 어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면 반역임. 아래 처럼 경우의 수를 상정.

- ① 先王이 궁예, 今上이 왕건 : 반역임. 선각대사비에서는 궁예를 前主라고 함.
- ② 先王이 왕건, 今上이 혜종 : 법경대사는 921년 입적, 혜종은 943년 즉위. 안맞음.
- ③ 先王은 왕건, 今上也 왕건 : 直從北發의 주체는 왕건. 대사 입적 직후에 작성된 문하승의 行狀에 ‘今上’으로부터 대우받은 내용을 최언위가 그대로 옮김. 최언위 비문의 일반

11) 이어진 뒷문장에는 太弟 大匡 王信을 보내 대사에게 가사와 발우를 전달. 왕신은 925년 元尹으로 견훤에게 인질로 갔다가 이듬해 견훤에게 죽임을 당함. 大匡은 추증임. 발우 등을 보낸 일은 925년 이전에 해당.

12) 『後漢書』 권78 宦者列傳 제68 孫程傳

13) 漢室龍興은 「선각대사비」와 같은 표현.

14) 많은 신하를 죽여 君臣의 의리가 무너지고, 아들을 죽여 父子의 도리를 어겼다는 투의 문장?

적 특성처럼, 대사의 어떤 행적을 적는 단락 앞에 일반적 상황을 적는 단락이 있음. 先王으로 시작하는 단락이 그에 해당. 비문 찬술이 마무리될 시점에 이미 왕건이 죽고 혜종이 즉위했을 수 있음. 그래서 ‘先王’이라 표현.

이 비문은 최언위가 최종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자가 마무리한 뒤 건비했을 가능성이 있음 : 비석은 944년(혜종 1) 5월에 세웠다고 새겨졌음. 대사 입적 후 21년만의 비석 건립인 셈. 태조가 943년 5월에 죽었으니 1년 뒤임. 최언위는 944년 12월에 77세로 사망.

의문 : ① 비문에는 대사가 921년 日月寺에서 입적한 것으로 기록. 『고려사』에 日月寺는 922년(태조 5) 4월 궁성 서북쪽에 창건. ② 이 비문은 드물게 찬자·서자를 새기지 않았음(보통 2행에 새김, 식별 불능한 몇 글자만 있음). ③ 뒷면의 在家¹⁵弟子 명단에 神聖大王, 그리고 조금 뒤에 崔彦攜가 있음(官銜 없이). ④ 先王으로 시작된 문장에서 南征 때 만난 대사를, 今上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새삼 소문을 들은 듯 서술(先王이 궁예라도 마찬가지로 왕건이 즉위 후에 처음 알았을 리 없음).

이 비문의 先王, 詔書, 帝命, 王程, 蘭殿, 寡人, 龍旆, 鳳儀, 今上, 上, 뒷면에는 神聖大王, 여러 번의 大王 : 이 중 鳳儀만 대사에 해당. 나머지는 帝王 즉 즉위 전의 왕건이고 즉위 후의 왕건임.

6. 역사와 인간을 다시 생각함

최언위 찬술의 禪師碑文 내용을 절대시하면 곤란. 그는 당시 세밀한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제하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궁예 말년의 행태 : 대부분 ‘합목적적 행위’처럼 해석해 왔음. 즉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미 부여. 그러나 나는 회의적. “정신적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생각.

왕건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볼 필요. 즉 ‘일방적 추대’(?)로 새 왕조를 개창한 사람일까? 이전부터 야망을 품고 오래토록 그렇게 처신한 사람인가? 선각대사비문 분석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듯 :

나주에서 철군할 때 무위사 선각대사를 태봉으로 모셔왔음. 그리고 舍那禪院에 머물게 하고 비용을 댔. 사나선원의 위치는? 기존에는 막연히 철원이라 생각. 그러나 「봉암사 정진대사비」에 광종이 정진대사를 ‘舍那禪院’으로 옮기게 한 뒤에 신하들을 이끌고 참시 궁궐을 나와 舍那院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음.¹⁶⁾ 선각대사를 모신 사나선원은 개성에 있는 절이었음.

15) 기존 판독 대부분 家를 學으로 오판독했음.

16) “其年四月移住舍那禪院… 上領文虎兩班及僧官 暫出珠宮 親臨金地 手攀鵲尾 面對龍頤” (「봉암사 靜眞大師碑」). 또 광종이 원종대사를 불러서 길을 떠난 대사가 王城 舍那院에 이르자 광종이 다음날 행차하여 만난 기록이 있음(“至王城舍那院 翌日 上幸舍那院” 「高達寺 元宗大師碑」). 이 왕성 사나원이 사나선원일 것. 아마 사나(선)원 또는 사나사라는 이름의 절이 개성 이외에도 있었으므로 구분하려고 ‘王城’이라고 굳이 덧붙이지 않았을까 생각.

禪師를 모셔온 것을 국왕(궁예)에게 보고했을 것. 왕건은 선사들이 개성 근방의 사원에 주석하는 비용까지 內庫(왕건의 私備, 시간을 소급한 표현)로 지출한 것에 주목할 필요. 불교계의 권위를 배경으로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일찍부터 실행되었음을 짐작.

오룡사 범경대사가 선각대사처럼 왕건의 철군 때 동행했을까? 비문의 결락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난색을 표했다는 구절로 미루어 동행하지 않고, 나중에 왕건이 즉위한 뒤에 다시 불렀다고 생각하면 비문의 수사 이하가 대략 이해될 여지가 생김(그렇더라도 이미 한 번 만난 사람을 서술한 내용으로는 조금 어색 - 비문 찬술자의 부정확함?).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점은, 이 비문에 관한 그동안의 해석이 정확한 판독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것.

또 비문 텍스트가 갖는 시대성·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현대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 - 즉 궁예를 내쫓고 즉위한 왕건, 그 왕건의 명령으로 비문을 찬술한 최연위가 문장 속에서 궁예를 太祖이라 표현하는 것은 곧 <반역> 행위가 된다는 것을 沒覺하면 곤란 ; 「弔義帝文」과 무오사화를 떠올릴 필요.

참고문헌

- 李智冠, 1994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伽山文庫
李賢淑, 1995 「나말려초 崔彦撝의 정치적 위상과 활동」 『梨花史學研究』 22
한국역사연구회,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상, 하)』, 혜안
崔鉉植, 2011 『韓國金石文集成19 (高麗3, 碑文3)』, 한국국학진흥원
최연식, 2011 「康津 無爲寺 先覺大師碑를 통해 본 弓裔 행적의 재검토」 『木簡과 文字』 7

최근 중국에서 출토된 주요 간독 소개 - 한반도 자료와의 연결을 모색하며

방윤미(서울대학교)

최근 중국에서 출토된 주요 간독 소개

- 한반도 자료와의 연결을 모색하며

방윤미(서울대학교)

목차

I. 2023년 새로운 자료 목록

II. 주제별 자료 상세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중국 고대사 연구는 간독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간독을 이용한 연구논문 서두에서는 심심치 않게 “쏟아지는 대량의 새로운 간독 자료”, 간독을 통해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와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운몽수호지진간을 필두로 20세기 후반이래 발굴된 간독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바로 작년인 2023년에도 적지 않은 간독이 새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2023년에 새롭게 발견된 간독 소식을 전하는 한편, 이미 발굴된 자료 중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I. 2023년 새로운 자료 목록

		간독	출토시기	출토지점	시대	내용
1	2023 공개 (논문)	王家嘴楚簡 ²⁾	2021	湖北 荊州	戰國 楚	『詩經』, 「孔子曰」, 樂譜 등 竹簡 3,200매 ³⁾
2		黃山漢簡 ⁴⁾	2002 ~2004	湖北 荊州	秦末~漢 初	質日 57매, 遣冊 24매 등 竹簡 81매, 裁判文 書 木觚 9매
3		化音漢墓出土木牘 ⁵⁾	2016	甘肅 臨澤	東漢 初	衣物疏 木牘 1매
4		印台漢簡 ⁶⁾	2021	湖北 荊州	西漢 初	遣冊, 曆譜, “責”字簡 등 竹簡 100여 매
5		花園新村遺址出土 東漢劾物木觚 ⁷⁾	2020	浙江 余姚	東漢 永平 17 년(74)	“天帝使者” 方術 관련 木觚 1매
6	2022 말 ~202 3 공개 (책)	睡虎地西漢簡·質 日 ⁸⁾	2006	湖北 雲夢	西漢 文帝	墓主 “越人”의 14년치 (기원전170-157) 質日
7		北京大學藏秦簡牘 ⁹⁾	2009(홍 콩 에 서 기증)	湖北일대 추정	秦	質日·日書·算書·道里書· 醫方·九九術·制衣書·官 箴書類·志怪故事·文學 性文獻·帳簿 등 죽간 761매, 목간21매, 목독 6매, 죽독4매, 목과1매.
8		益陽兔子山七號井 簡牘 ¹⁰⁾	2013	湖南 益陽	西漢 高祖	長沙國 益陽縣 官文書 (字書·乘法表 등의 첩

1)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목간’이라고 지칭하지만 중국에서는 ‘간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본 발표의 주제는 중국의 자료이므로 ‘간독’이라고 칭하겠다.

2) 肖玉軍, 「湖北荊州王家嘴798號楚墓發掘簡報」, 『江漢考古』 2023-02.

					~惠帝	字簡, 戶籍·徒隸作簿 등의 簿籍, 私人書信 등) 2,392매 ¹¹⁾
9		懸泉漢簡(參) ¹²⁾	1990~1992	甘肅	漢代	懸泉置遺址 출토 문서 (治書·律令·科品·九九表·簿籍·爰書·劾狀·符·傳·檄·曆譜·字書·醫方·相馬經·佚書 등) 18,000여 매
10		走馬樓西漢簡 ¹³⁾	2003	湖南 長沙	西漢 武帝	長沙國 官文書 2천 여 매. 爰書·劾狀·計書·簿籍·律令·券書·案錄·私人信件 등
11		南越木簡 ¹⁴⁾	2004~2005	廣東 廣州	西漢 文帝	南越國 제도와 왕궁 생활 관련 기록 100여 매
12		天回醫簡 ¹⁵⁾	2012	四川 成都	西漢 初	醫方
13		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 ¹⁶⁾	1985	湖北 荊州	西漢 文帝	律令·質日·遺冊·食氣·「盜跖」·祭祀 관련 내용 등 竹簡 827매
14		河泊所遺址漢簡 ¹⁷⁾	2023	雲南 昆明	漢代	河泊所遺址는 滇國의 도읍과 益州郡·滇池縣 治所. 각종 公文書·往來文書·司法文書·戶版·名籍·書信·典籍 등 2천여 매
15	2023 발굴	秦家嘴 M1093 楚簡 ¹⁸⁾	2023	湖北 荊州	戰國 楚	先秦시기 “書”類·“語”類·儒家·墨家·法家·數學·醫藥·畜牧·文學·日書 등 각종 문헌 竹簡 3,910매.
16		武隆關口一號墓內出土的木牘 ¹⁹⁾	2023	重慶 武隆	西漢 惠帝	御史 “昌”의 무덤 출토, 干支木牘 23매·告地書·遺策
17		湖南長沙發現200片秦末殘簡牘 ²⁰⁾	2023	湖南 長沙	秦末~漢 初	官文書, 殘簡牘 200편.
18		渡頭古城遺址簡牘 ²¹⁾	2023	湖南 郴州	三國 吳	2,000여 매 중 有字簡牘 120여 매. 券書·賬簿·名刺·書信 등.

- 3) 묘실 내에서 수합한 간독의 편호는 3,200매에 달하지만 원래는 800매 정도의 수량으로 추측
4) 陳程, 「湖北荊州黃山墓地M576發掘簡報」, 『江漢考古』 2023-02; 謝春明, 「湖北荊州黃山M576出土竹簡和木牘」, 『江漢考古』 2023-02.
5) 王衛東, 「甘肅臨澤化音漢墓發掘簡報」,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23-02.

II. 주제별 자료 상세

1.九九段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九九表’ 또는 ‘九九術’이라고 지칭하는 소위 구구단 간독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간독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학술지에도 누차 소개된 바가 있다.²²⁾ 특히 『목간과 문자』에만 2차례에 걸쳐 중국의 구구단 간독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구구단 목간이 발견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중국의 수많은 간독자료 중에서도 특히 구구단 간독에 대한 국내 목간 연구자 및 한국사 연구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최근 새롭게 발견된 구구단 간독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목간과 문자』 25에 게재된 다이웨이홍의 논문에 따르면 당시까지 출토된 중국의 구구단 간독은 21건으로 집계된다.²³⁾ 여기에 2022년²⁴⁾과 2023년²⁵⁾에 새로 발견 혹은 공개된 2건의 구구단 간독을 추가하면 중국의 구구단 간독은 총 23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2023년의 新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우선 이전까지 발견된 구구단 간독 중 가장 오래되면서 완전한 것은 <里耶秦簡>의 구구단으로 알려져 있었다.²⁶⁾ <이야진간>의 구구단 양식은 한반도와 일본에서 출토된 구구단 목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런데 최근 <이야진간>과 비슷한 시기의 간독인 <北大秦簡>에서

- 6) 羅廷, 「湖北荊州印台墓地M159、M160發掘簡報」, 『江漢考古』 2023-02.
- 7) 孫聞博 等, 「浙江餘姚花園新村遺址出土東漢幼物木觚」, 『文物』 2023-06.
- 8) 湖北省文物考古研究院 等編, 『睡虎地西漢簡牘(壹)』, 上海:中西書局, 2023.
- 9)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 『北京大學藏秦簡牘』,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23.
- 10)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等編, 『益陽兔子山七號井西漢簡牘』,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23.
- 11) 이는 張春龍, 「湖南益陽兔子山遺址七號井發掘簡報」, 『文物』 2021-06에 따른 것으로 無字簡을 포함한 수이다. 有字簡은 2,302매이며 削衣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 12) 甘肅簡牘博物館 等編, 『懸泉漢簡(叁)』, 上海:中西書局, 2023.
- 13) 長沙簡牘博物館 等編, 『長沙走馬樓西漢簡牘選粹』, 長沙:岳麓書社, 2023.
- 14) 廣州市文物考古研究院 等編, 『南越木簡』, 北京:文物出版社, 2022.
- 15) 天回醫簡整理組 編, 『天回醫簡』, 北京:文物出版社, 2022.
- 16) 荊州博物館 編, 『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 北京:文物出版社, 2022.
- 17) http://www.xinhuanet.com/2023-03/20/c_1129447595.htm
- 18) <http://www.bsm.org.cn/?chujian/9306.html>
- 19) https://news.hangzhou.com.cn/gnxw/content/2023-12/06/content_8655387.htm;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332148104874606&wfr=spider&for=pc>
- 20) <https://baijiahao.baidu.com/s?id=1789470572928551465&wfr=spider&for=pc>
- 21)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978171881466884&wfr=spider&for=pc>
- 22) 蕭燦 著, 송진영 譯, 「고대 중국의 수학 간독의 출토상황과 문서서식 및 연구 현황-진한시기의 九九表과 算數書를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17, 2016; 다이웨이홍, 「중국 출토 구구표 자료 연구」, 『목간과 문자』 25, 2020; 윤재석, 「秦漢代的 算學教育과 ‘구구단’ 木簡」, 『동서인문』 19, 2022.
- 23) 다이웨이홍, 「중국 출토 구구표 자료 연구」, 『목간과 문자』 25, 2020.
- 24) 曹錦炎 等 主編, 中國美術學院漢字文化研究所 編, 『烏程漢簡』, 上海:上海書畫出版社, 2022.
- 25) <秦家嘴M1093楚簡> <http://www.bsm.org.cn/?chujian/9306.html>
- 26) <이야진간>의 구구단 간독은 2건이다. (1) J1(6)1(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里耶秦簡(壹)』, 北京:文物出版社, 2012, p.9) (2) 12-2130+12-2131+16-1335(里耶秦簡博物館 等 編,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上海:中西書局, 2016, p.63)
- 27) 시기적으로 더 이른 구구단 관련 자료는 清華大學 소장 戰國시대 「算表」가 있지만, 양식이 한반도 및 일본에서 출토된 구구단과는 다르다.

도 구구단 죽간과 구구단 목독이 각각 1건씩 나왔다.²⁸⁾ 단수의 차이는 있지만 구구단의 순서나 양식은 사실상 동일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의 방향에 따라 “九=八十一 八九七十二 七九六十三 …… 二九十八”의 순으로 9단을 나열한 뒤, 8단을 “八=六十四 七八五十六 …… 二八十六”으로 나열하고, 또 7단을 “七=卅九 …… 二七十四”의 순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마지막 “二=而四 一=而二 一半而一”까지 서술한 다음 “凡千一百一十三字”와 같이 총계로 마무리하는 식이다.(<그림1>) 이는 <이야진간>과 <북대진간 목독>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북대진간 죽간>에서는 “一半而一”이 없고 “一=而二”로 구구단이 끝나며, 총계도 “凡千一百一十二字”로 숫자가 다르다.(<그림2>)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 계산의 차이로만 보기 어려운데, 이미 기존 <이야진간> 및 서북지역 한간 출토 구구단에서 “一=而二”의 考釋과 관련된 논의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一=而二”의 “=”를 중문부호로 본다면 “一=而二”은 $1+1=2$ 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구구단이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一=而二”의 “=”를 중문부호가 아니라 “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²⁹⁾ “一半而一”과 합쳐 마지막 2개의 구구단은 사실 $1+1=2$, $\frac{1}{2}+\frac{1}{2}=1$ 의 덧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³⁰⁾ 여기에 <敦煌漢簡> 구구단(簡2170)에 “一=而二”를 대신하여 적힌 “一一而一”의 考釋 문제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³¹⁾ 같은 구구단 내에서 “二”와 “=”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데 헛갈릴 정도로 어려운 계산도 아닌 “一=而二”에서만 “二”를 “=”로 썼다고 보기 어렵고,³²⁾ 복수의 구구단 간독에서 공통적으로 “一=而二”로 쓰고 있다는 것은 초사자 개인의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는 중문부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고 중문부호라고 보는 학자들의 추정처럼 곱셈을 쓰다가 갑자기 마지막 2개의 구구단만 덧셈을 쓴다는 것도 어색한 해석이다. 특히 淸華大學 소장 戰國시대 간독 <算表>에서³³⁾ 1단을 포함하여 진한시대 구구단 간독의 범위를 넘어서는 곱셈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미 1단 곱셈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역시 어느 쪽의 해석이든 온전히 납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구단 간독에 보이는 수식이나 총계상의 약간의 차이는 덧셈이다 곱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북대진간> “魯久次問數於陳起”라는 일종의 數論 문헌이 그 단서가 될 수 있다. 사실 앞에서 소개한 <북대진간 죽간> 구구단은 목독 구구단과 달리 이 “魯久次問數於陳起”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魯久次問數於陳起”의 내용은 魯久次가 陳起라는 數의 대가에게 數에 대해 질문하고 陳起가 대답하는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단순히 계산상의 수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으로 天下萬物을 관통하는 것이 數의 본질적 가치임을 드러내고 있다.³⁴⁾ 계

28)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 『北京大學藏秦簡牘』,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23.

29) 이성규, 『수의 제국 진한: 계수와 계량의 지배』, 대한민국학술원, 2019, pp.62-63; 윤재석, 「秦漢代の 算學教育과 ‘구구단’ 木簡」, 『동서인문』 19, 2022, p.32.

30) 다이웨이홍, 「중국 출토 구구표 자료 연구」, 『목간과 문자』 25, 2020, p.264.

31) 윤재석, 「秦漢代の 算學教育과 ‘구구단’ 木簡」, 『동서인문』 19, 2022, p.33, 각주 52. 저자는 정리 소조가 <이야진간> 등 다른 구구단의 사례에 따라 “一一而一”을 “一一而二”로 고친 것을 반대하며, 이는 漢代 구구단에 1단이 가미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한다.

32) 심지어 <북대진간>에서는 “二三而六”의 부분에 “三” 대신 “參”을 쓰고 있는데 앞의 “二”와 획이 잘 구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 같다. 이를 비추어 보면 구구단을 쓸 때 글자가 헛갈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만약 “一=而二”가 “一二而二”의 誤記이며 이러한 실수가 자주 일어났다면 충분히 “貳”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33) 李均明·馮立昇, 「淸華簡<算表>概述」, 『文物』, 2013-08.

34) 이성규, 『수의 제국 진한: 계수와 계량의 지배』, 대한민국학술원, 2019, pp.28-41.

다가 後漢대 무덤에서 구구단 전돌이 발견된 것은 구구단이 사후 세계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 같다.³⁵⁾ 즉 동아시아에 발견되는 구구단 간독 자료는 단순히 계산이나 암기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종종 특정 구구단만 발췌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한편 작년 5월 秦家嘴M1093 戰國시대 楚墓에서 새롭게 출토된 구구단 竹簡 1매는 학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소개한 <北大秦簡>의 경우 도판과 석문의 출간은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2009년에 입수되어 관련 내용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던 반면, <秦家嘴楚簡>은 그야말로 땅속에서 막 꺼낸 새로운 자료다. 현재 발표된 <진가취초간> 구구단 자료는 단 1매에 불과한데, 도판과 석문이 공개되었다.³⁶⁾ 이 간은 7단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卅”, “廿”과 같은 숫자를 畝文부호로 나타낸다는 점, 그리고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를 “又”로 연결하고 있는 점이 진한 구구단 간독과 차이가 있다.

“……二, 五七卅=(三十)又五, 四七廿=(二十)又八, 三七廿=(二十)又一■, ……”

<진가취초간> 구구단은 현존 가장 오래된 구구단 간독으로 알려졌던 <이야진간>보다 약 100년이나 이른 시기의 구구단이라는 점, 秦漢代 구구단과 서술상의 차이점이 보이는 초나라 계통의 구구단이라는 점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진가취초간>이 한창 정리 중인 관계로 향후 더 많은 구구단 간독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앞으로 구구단 간독이 더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고대 동아시아의 算學 및 구구단과 관련된 역사 서술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³⁷⁾

35) 이성규, 『수의 제국 진한: 계수와 계량의 지배』, 대한민국학술원, 2019, p.64.

36) <秦家嘴M1093楚簡> <http://www.bsm.org.cn/?chujian/930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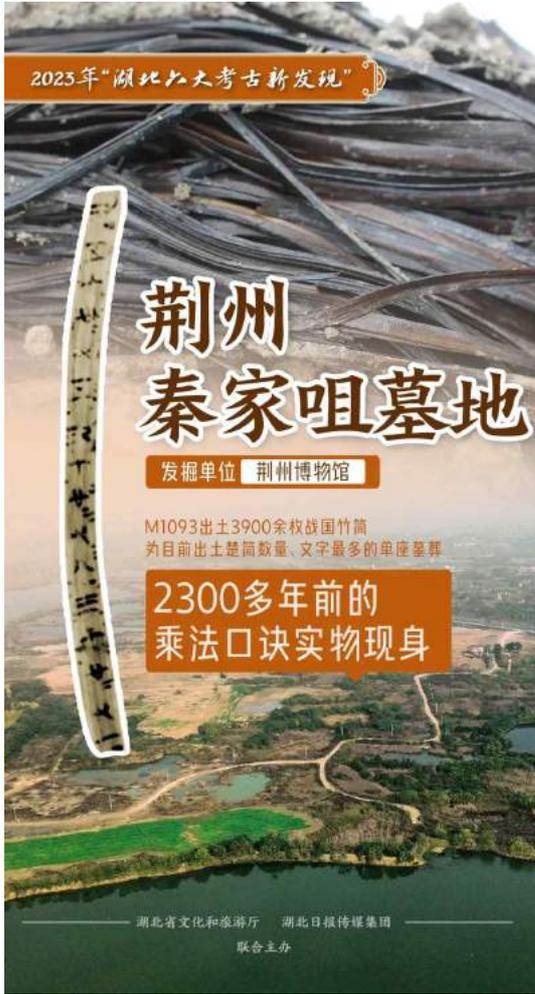
37) 이외에도 2013년에 발굴되어 2023년에 출간된 <益陽兔子山七號井簡牘>에도 西漢 초기 구구단 간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최근 새로 공개된 구구단 간독은 더 있다. 다만 기존 진한대 구구단 간독과 큰 차이가 없고 잔편이 많아 여기서는 굳이 상세히 소개하지 않았다.



그림 1 <북대진간 九九術 목독>



그림 2 <북대진간 算書 甲種 죽간 >



2. 邊境地域의 郡縣支配와 異民族

2023년에는 漢代 변경지역의 행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공개되었다. 우선 『懸泉漢簡』, 3권이 출간되었다.³⁸⁾ 敦煌 懸泉置는 일종의 역참으로 서쪽에서 오는 다양한 외국 빈객을 접대한 곳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懸泉置漢簡>은 漢 제국의 서북 변경 경영을 재구성하게 해 주는 주요한 자료이다. 20세기에 발굴되어 상당수가 예전에 공개된 자료이기는 하나 감숙간독 박물관의 주도로 대대적으로 재정리가 되어 미공개 간독까지 아울러 차츰 발간되고 있는 중이다.

<현천치한간>이 漢 제국의 서북 변경 경영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2023년 雲南 河泊所遺址에서 소위 西南夷 지역에서의 지배를 보여주는 간독이 발굴되었다. 河泊所遺址는 滇國의 도읍이었으며 益州郡과 滇池縣의 治所가 있었던 곳이다. 여기서 2천 여 매에 달하는 官文書가 발견되었다. 일부 간독에는 “滇國”, “滇相”, “滇丞”, “滇廷”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는 漢이 滇相 등의 관직을 설치하여 滇國을 다스렸음을 보여준다. 또 당시 益州郡 관할 24개 縣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12개의 縣名도 확인되며, 다수의 호적 자료는 漢이 益州郡에서 이미 編戶齊民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낙랑군 호구부’를 연상시킨다. 그밖에 “滇池以亭行”

38) 甘肅簡牘博物館 等編, 『懸泉漢簡(叁)』, 上海:中西書局, 2023.

와 같은 기록에서 益州郡에 이미 완전한 郵亭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論語』도 일부 발견되어 평양출토 『論語』처럼 변군으로의 유가 思想의 전래 상황도 알 수 있다.³⁹⁾ 이처럼 <河泊所漢簡>은 漢이 西南夷 지역에 益州郡을 설치한 후 문서, 관직, 호적, 부역, 법률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西南 변경 지역을 지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향후 자세히 공개될 것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益州郡의 설치와 운영은 漢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설치한 漢四郡의 설치 및 운영과 비교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고대사 연구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현천치한간>이 제국의 서북변경, <河泊所漢簡>이 서남변경의 지배와 관련이 있다면, <南越木簡>은 제국의 남쪽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이다. <南越木簡>은 西漢 南越王宮 유지에서 출토된 간독을 정리한 것으로, 아직 武帝에 의해 멸망하기 전 아직 남월이 건재하던 시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천치한간>과 같이 제국의 변경 운영이나 이민족 지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남월이 주변국으로서 秦漢의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진한교체기에 성립되어 武帝에 의해 멸망당하고 군현지배가 실시된 공통점이 있는 위만조선의 모습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2023년에 출간된 <走馬樓西漢簡>은⁴⁰⁾ 西漢 武帝 시기 長沙國의 官文書다. 長沙지역은 懸泉置, 河泊所 및 南越지역만큼의 변경은 아니지만 제국의 남쪽에 치우친 제후왕국으로서 완전한 내지로 보기는 어렵다. <走馬樓西漢簡>에는 제국의 이민족 지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소조는 “無陽鄉畜夫襄人斂賓案”으로 명명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無陽鄉의 鄉畜夫 襄人이 관할 지역의 이민족들로부터 일종의 이민족 특별 세금인 賓을 거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다.⁴¹⁾ 이 안건에는 長沙 지역 이민족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었던 다양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고, 또 吏가 賓의 수령을 현지인에게 위탁하여 중개자로 부리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민족과의 소통을 위해 율령 규정에 따라 譯人을 동원한 사례 등, 제국 내의 이민족 지배 실태를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참고가 된다.

3. 문서 행정

제국이 광활한 영토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문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秦漢 제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簿籍, 帳簿, 律令, 司法, 券書 등 다양한 종류와 방대한 수량의 官文書 간독자료는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간독은 근래에도 적지 않게 출토되어 더욱 풍부한 중국 고대사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국내 한국사연구자에게는 낯설 수 있는 質日이라는 종류의 간독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質日은 秦~西漢 시기에 유행하였으나 후대에는 실전된 형식의 문헌으로, 1년치 曆表에 개인의 공적·사적 업무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일기 같은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 質日은 관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관문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 공개·발굴된 質日만 헤아려도 <北大秦簡>, <張家山336號漢簡>, <黃山漢簡>, <睡虎地西漢簡> 등 다수가 있는 만큼, 質日은 기층 吏들에게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필수적인 문서였던 것 같다. 秦漢간독에서 주로 보증을 위해 저당잡힌 물건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質”字的 의미

39) http://www.xinhuanet.com/2023-03/20/c_1129447595.htm

40) 長沙簡牘博物館 等編, 『長沙走馬樓西漢簡牘選粹』, 長沙:岳麓書社, 2023.

41) 陳松長, 「長沙走馬樓西漢簡“襄人斂賓案”相關問題略論」,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23』, 2023.

에 주목한다면, “質日”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보증하기 위해 관리가 관부에 저당잡힌 날짜이며, 여기서 ‘무언가’는 곧 ‘관리의 功勞에 기초한 승진’이고, 이를 위해 관리는 자신의 활동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⁴²⁾

그중에서도 2023년에 출간된 <睡虎地西漢簡> 1권은 西漢 文帝시기 지방 小吏였던 “越人”이라는 인물이 14년(기원전170-157)간 연속으로 기록한 質日을 담고 있다.⁴³⁾ 이를 통해 그가 1년에 최대 154일 출장을 나가기도 하였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공로 성적이 삭감되기도 하였으며, 15년 동안 기층 단위에 머무르며 죽을 때까지 승진하지 못했던 사실도 알 수 있다.⁴⁴⁾ 이러한 質日은 기존 官文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다양한 행정 실상과 기층 관리의 생활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23년에 발굴된 간독 자료 중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官文書로는 <渡頭古城遺址吳簡>이 있다. 渡頭古城遺址 J1, J2에서 출토된 간독은 도합 9천 여 매에 달한다. 그중 글자가 확인되는 간독은 1,620여 매로 추산되며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다고 한다. 三國 魏나라 孫權의 연호가 확인되며 당시 臨武縣의 행정문서로 추정된다. 과거 <走馬樓吳簡>의 발견으로 사료가 부족한 三國시대의 새로운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吳簡의 발견으로 기존 삼국시대 역사를 더욱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渡頭古城遺址吳簡>은 당시 이 지역 지방정권의 행정 및 그 변천 과정뿐만 아니라 秦漢에서 魏晉南北朝로 넘어가는 시기의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⁴⁵⁾

4. 思想의 유통

앞서 漢제국의 서남 변경에 해당하는 雲南 출토 <河泊所漢簡>에서 『論語』 일부가 발견되어 당시 이 지역에 儒家 문헌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論語』가 출토된 것을 연상시킨다.

한편 <王家嘴楚簡>⁴⁶⁾과 <秦家嘴楚簡>⁴⁷⁾에서도 孔子와 관련된 문헌이 출토되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출토되고 있는 이러한 간독을 종합하여 연구한다면 한반도 출토 『論語』 자료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木觚

한반도 출토자료는 상대적으로 다면목간, 즉 木觚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적지 않은 木觚가 출토되었으며 근래에도 눈길을 끄는 木觚 2건이 공개·발굴되었다. 첫째로 <黃山簡牘>에서는 裁判文書로 보이는 木觚 9매가 발견되었다.(<그림4>) 1면은 평평하고 字痕이 없다. 나머지 1면은 3면으로 깎은 다음 가운데에만 글을 썼다. 완전한 木觚의 길이는 20cm, 폭은 1cm이다. 殘缺이 매우 심해 정리소조가 정리 과정을 거쳐 6매의 木觚로 편철하였으며, “秦二世元年”이라는 기년이 보이고 ‘責錢’, ‘罰錢’ 등을 언급한 것을 보건대 秦末 경미한 범죄안건에 대한 재판문서의 일종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⁴⁸⁾ <악록진간>, <장가산

42) 2024년 1월 6일 “《睡虎地西漢簡牘·質日》成果發佈暨學術座談會” 김병준 발표문.

43) 湖北省文物考古研究院 等編, 『睡虎地西漢簡牘(壹)』, 上海:中西書局, 2023.

44) 長江日報 2024.01.08.

45)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978171881466884&wfr=spider&for=pc>

46) 肖玉軍, 「湖北荊州王家嘴798號楚墓發掘簡報」, 『江漢考古』 2023-02.

47) <http://www.bsm.org.cn/?chujian/9306.html>

48) 陳程, 「湖北荊州黃山墓地M576發掘簡報」, 『江漢考古』 2023-02; 謝春明, 「湖北荊州黃山M576出土竹簡和木觚」, 『江漢考古』 2023-02.

한간> 등 적지 않은 秦末~漢初 재판문서가 출토되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아주 새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黃山簡牘>과 같이 木觚 형태의 재판문서는 매우 특별하다. 뿐만 아니라 1면을 3면으로 깎아 가운데에만 서사한 이러한 형태의 木觚 자체도 독특하기 때문에 다면체 간독 연구에 있어 참고가 된다.

다음으로 花園新村遺址에서 출토된 東漢시대 木觚가 있다.<그림5> 이 木觚는 方術의 용도로 사용된 것 같다. 배면은 평면으로 글자가 없고, 정면은 5면으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행을 적어 내려갔다. 중간보다 약간 위에 封泥를 위한 홈이 있고, 木觚 가운데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길이는 46cm, 폭은 4.2~5.5cm, 두께 1~3.6cm이다. 木觚의 形制나 “天帝使者信臣告餘姚縣”, “如律令” 등의 문구로 보건대 漢代 관문서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추정된다.⁴⁹⁾ 다만 이러한 문구는 후대 주술목간의 표현과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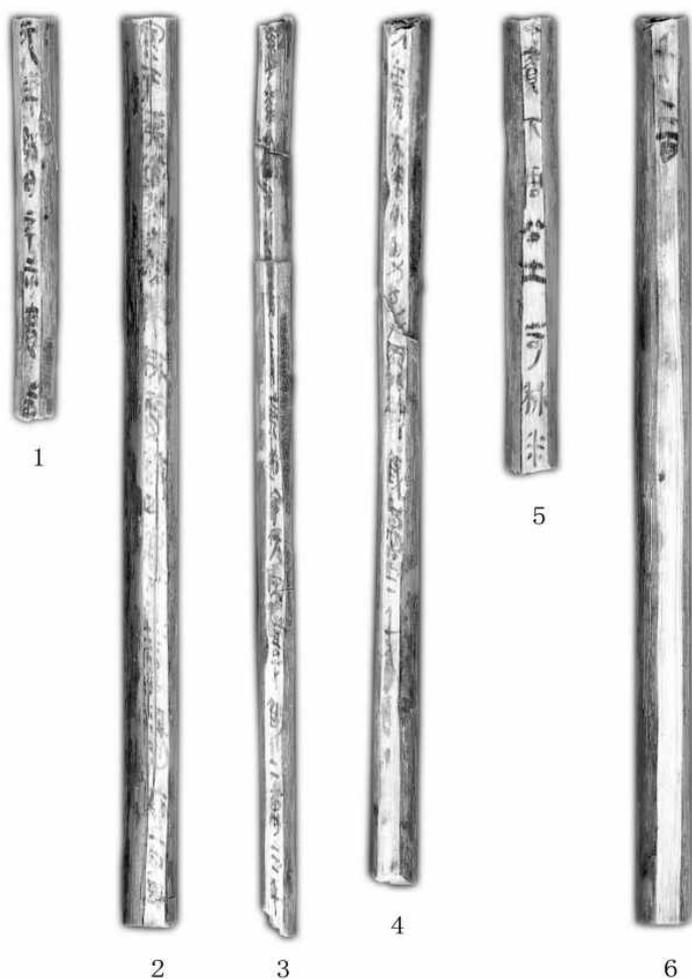


그림 4 <黃山木觚>

49) 孫聞博 等, 「浙江餘姚花園新村遺址出土東漢劾物木觚」, 『文物』 2023-06.



图一 木觚(左为正面)

그림 5 <花園新村遺址東漢木觚>

6. 율령

근래 중국에서는 秦末~漢初의 율령자료가 대거 발견되면서 秦漢시대 법전의 성립과 구성을 둘러싸고 학계의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⁵⁰⁾ 이들 율령자료가 정리소조에 의해 정리되어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출간되고 있으며,⁵¹⁾ 이에 따른 연구논문도 쏟아지고 있다.⁵²⁾

우선 <益陽兔子山七號井簡牘>⁵³⁾에는 西漢 惠帝 시기 律目과 당시 漢律이 “獄律”과 “旁律”이라는 두 개의 층차로 나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독이 포함되어 있다. <張家山336號漢簡>⁵⁴⁾과 <睡虎地西漢簡>⁵⁵⁾의 율령자료는 모두 文帝 시기의 것으로 아직 肉刑의 폐지나 有期

50) 이와 관련된 내용은 陳偉 箸, 방윤미 해제 및 번역, 「秦漢 簡牘에 보이는 律典 체계」, 『동아문화』 58, 2020-12의 【해제】에 소개되어 있다.

51) 荊州博物館 編, 『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 北京:文物出版社, 2022.; 湖南省文物考古研究 等編, 『益陽兔子山七號井西漢簡牘』,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23.; 湖北省文物考古研究院 等編, 『睡虎地西漢簡牘(壹)』, 上海:中西書局, 2023.

52) 김병준, 「진한(秦漢)시기 조령(詔令)의 반포와 령(令)의 정비」, 『인문논총』80-2, 2023.

53) 湖南省文物考古研究 等編, 『益陽兔子山七號井西漢簡牘』,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23.

勞役刑으로의 전환 등의 刑制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도 잘 알려진 呂后2년의 <二年律令>⁵⁶⁾과 유사한 조문이 많아 서로 대조함으로써 編綴이나 考釋의 오류를 잡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睡虎地漢簡>의 경우 <益陽兔子山七號井簡牘>과 마찬가지로 “口律”, “旁律”의 구분이 보여 소위 漢律典의 체계를 둘러싼 논의를 진척시키는 자료가기도 하다. 여기에 2021년에 選粹本이 출간되어⁵⁷⁾ 앞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全文이 출간될 文帝의 형제 개혁 이후의 <胡家草場漢簡>이 더해진다면, 중국 고대법전의 역사가 다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자 본인의 주된 관심 분야 역시도 바로 이 율령자료이며 특히 율전의 성립과 맞물려 文帝의 刑制 개혁 전후 율령 체계의 형성 과정을 고찰한 바 있다.⁵⁸⁾

54) 荊州博物館 編, 『張家山漢墓竹簡(三三六號墓)』, 北京:文物出版社, 2022.

55) 단 <睡虎地西漢簡>의 경우 ‘質日’자료만 1권으로 출판되고 율령자료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湖北省文物考古研究院 等編, 『睡虎地西漢簡牘(壹)』, 上海:中西書局, 2023.)

56) 彭浩 等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8.

57) 荊州博物館 編(2021),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選粹』, 北京:文物出版社

58) 방윤미, 「秦·漢初 司寇 再考 - 女性司寇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67輯, 2023-02.; 방윤미, 「진한(秦漢) 형벌체계 형성과정의 일고찰 - 사구(司寇)의 기원과 ‘정형’(正刑)화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논총』80권 2호, 2023-05.